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785-01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빅데이터 분석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07.

연구수행기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CONTENTS

- I. 혐오/차별단어 정리 방법론 및 분석 개요
- II. 코로나19 언급량 추이
- III. 코로나19와 혐오표현의 전파
- IV. 선별 주제 분석
- V. 요약 및 결론

1. 혐오/차별단어 정리 방법론 및 분석 개요

- 혐오표현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전적으로 정의된 '혐오'와 '차별' 관련 단어를 탐색하여 기본 키워드셋 설정

혐오표현의 개념

1. 개념 :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2. 개념 요소

- ①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
- ② 부정적 관념과 편견
- ③ 언동 등의 표출 행위

사전적 정의 - 혐오

- 혐오(嫌惡) : 싫어하고 미워함
-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
- 유의어 : 질색, 증오, 반감, 경멸, 적대감, 적개심, 염오

사전적 정의 - 차별

- 차별(差別)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용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 유의어 : 층하, 불공정, 불공평, 홀대, 낮잡다

- 뉴스를 제외하고 SNS 중심으로 실제 '혐오' 및 '차별'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단어들(이슈어)을 탐색
- 2019년 1~12월, 2020년 1~5월의 두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Top1,000 이슈어 중 감정표현 및 특정집단 단어 조사

[혐오] 연관어(2019)	[혐오] 연관어(2020)	[차별] 연관어(2019)	[차별] 연관어(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어 : 증오, 거부감, 불쾌감 • 제외어 : 자기혐오, 동족혐오, 인간혐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어 : 증오, 거부감 • 제외어 : 자기혐오, 동족혐오, 인간혐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어 : 불평등, 차별대우, 불이익 • 제외어 : 역차별, 무차별,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어 : 불평등, 차별대우 • 제외어 : 차별성
[혐오] 연관집단(2019)	[혐오] 연관집단(2020)	[차별] 연관집단(2019)	[차별] 연관집단(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관련(한남, 워마드, 페미니스트 등) • 소수자(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등) • 인종 및 국가 • 특정 지역 • 노동자, 노동조합 • 정치 관련(극우집단, 일간베스트, 친일파 등) • 기독교 • 장애인 • 난민 • 세월호 • 오타쿠 • 동물 등(고양이, 곤충) • 위안부(강제징용피해자) • 범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관련(한남, 워마드, 페미니스트 등) • 특정 종교(신천지, 기독교, 교회, 목사 등) • 소수자(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등) • 인종 및 국가 • 특정 지역 • 노동자 • 정치 관련(정치인, 일간베스트, 검찰, 공무원, 판사, 당선인, 후보자, 우파 등) • 장애인 • 난민 • 세월호 • 동물 등(고양이) • 위안부(강제징용피해자) • 범죄 관련 • 질병 관련 • 아이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관련(한남, 워마드, 페미니스트 등) • 연예인 관련(소속사, 특정 인물 언급 등) • 기업/노동 관련(회사, 특정 기업 언급, 직장인, 비정규직 등) • 특정 인종 및 국가 • 장애인 • 정치 관련 • 범죄 관련(가해자, 피해자, 범죄자 등) • 의료 관련(의사, 환자 등) • 종교 관련(교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관련(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환자, 의사, 사망자 등) • 성별 관련(여성/남성) • 특정 인종 및 국가 • 장애인 • 기업/노동 관련(특정 기업 언급,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등) • 소수자(성소수자, 사회적약자 등) • 정치 관련 • 종교 관련(신천지, 교회 등) • 범죄 관련(가해자, N번방, 버닝썬 등)

- 사전적 의미의 혐오 및 차별과 온라인에서 혐오 및 차별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고려하여 기본 키워드셋을 설정 및 협의에 따라 조정

포함 표현

[혐오] 질색, 증오, 반감, 경멸, 적대감, 적개심, 극혐, 불쾌, 기피, 불결, 거부감
[차별] 불공정, 불공평, 홀대, 편견, 불평등, 차별대우, 불이익

제외 표현

[혐오] 자기혐오, 동족혐오, 인간혐오
[차별] 역차별, 무차별, 차별성

카테고리	키워드
코로나19	((("코로나" OR "우한폐렴" OR "코로나19" OR ("신증" AND "코로나") OR ("코로나" AND "바이러스") OR "신증코로나" OR "코로나바이러스" OR "신증코로나바이러스" o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or "신증코로나19") not ("클릭" or "뉴스1" or "뉴스" or "people" or "동영상뉴스" or "스타그램" or "소통" or "daily" or "셀카" or "팔로우" or "ootd" or "셀피" or "먹스타그램" or "follow" or "데일리룩" or "연합뉴스" or "애견샵" or "강아지분양" or "고양이분양" or "강아지" or "고양이"))
지역 차별/혐오	((("대구코로나" OR ("대구폐렴") OR ("전라디언") OR ("명청도") OR ("개쌍도") OR ("언어명청도") OR ("깡깡이") OR ("짬물") OR ("까보전") OR ("경상디언") OR ("홍어족") OR ("홍어동네") OR ("손상님동네") OR ("보리문디") OR ("경상동화") OR ("머구리") OR ("경북괴") OR ("돼구") OR ("전라동화")))) NOT (("그지" AND "깡깡이") OR ("거지" AND "깡깡이"))
인종차별 (이주민혐오)	((("튀기") OR ("유사인종") OR ("쪽바리") OR ("좃선족") OR ("무슬림" AND "테러리스트") OR ("파퀴벌레") OR ("우한폐렴") OR ("조선족") OR ("짱개") OR ("중국인" AND "입국금지") OR ("중국인" AND "출입금지") OR ("중국" AND "봉쇄") OR ("코로나" AND "대림동") OR ("중국인" AND "입국") OR ("중국" AND "미개") OR ("중국" AND "위생") OR ("중국" AND "범죄율") OR ("깜둥이") OR ("백남") OR ("흑형") OR ("흑누나") OR ("베트콩") OR ("개슬람") OR ("똥남아"))
성소수자 혐오	((("성소수자") OR ("호모") OR ("똥꼬충") OR ("게이새끼") OR ("레즈새끼") OR ("변태성욕자") OR ("보추") OR ("젠신병자") OR ("동성애" AND "에이즈") OR ("동성애" AND "보균자") OR ("동성애" AND "치료"))
종교(신천지)혐오	((("신천지코로나") OR ("31번환자") OR ("코로나" AND "사이비") OR ("신천지" AND "사이비") OR ("신천지" AND "출입금지"))
여성혐오	((("김치녀") OR ("똥녀") OR ("오크녀") OR ("성괴") OR ("보슬아치") OR ("좃집") OR ("정액받이") OR ("상폐녀") OR ("김여사") OR ("삼일한") OR ("피싸개") OR ("똥장녀") OR ("페미충") OR ("창녀") OR ("쿵광녀") OR ("맘충") OR ("쿵광이") OR ("페미나치") OR ("메퇴지") OR ("뽕앳다") OR ("꿀페미") OR ("꿀뱅이년") OR ("멧퇴지") OR ("기모찌") OR ("가부끼")) NOT (("딸기모찌"))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언론,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등 광범위한 수집채널을 통해 빅데이터를 수집



I 5. 분석 방법

- 온라인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이 작성하는 글을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며, 다양한 분석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제별 핵심 내용을 파악



소셜 빅데이터 수집

- 다양한 분석 채널을 대상으로 일일 1,8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빠른 시간 내로 검색 및 분석 작업에 활용

고급 텍스트 분석 기술을 통한 인사이트 발굴

- 고급 텍스트 분석 기술을 통해 연관어 분석, 이슈 및 관심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굴

다각적인 분석

- 단순 언급량 관련 분석뿐 아니라 연관어, 감성(긍/부정)의 언급량 및 연관 단어, 해시태그 검색, 인플루언서 중심 이슈관리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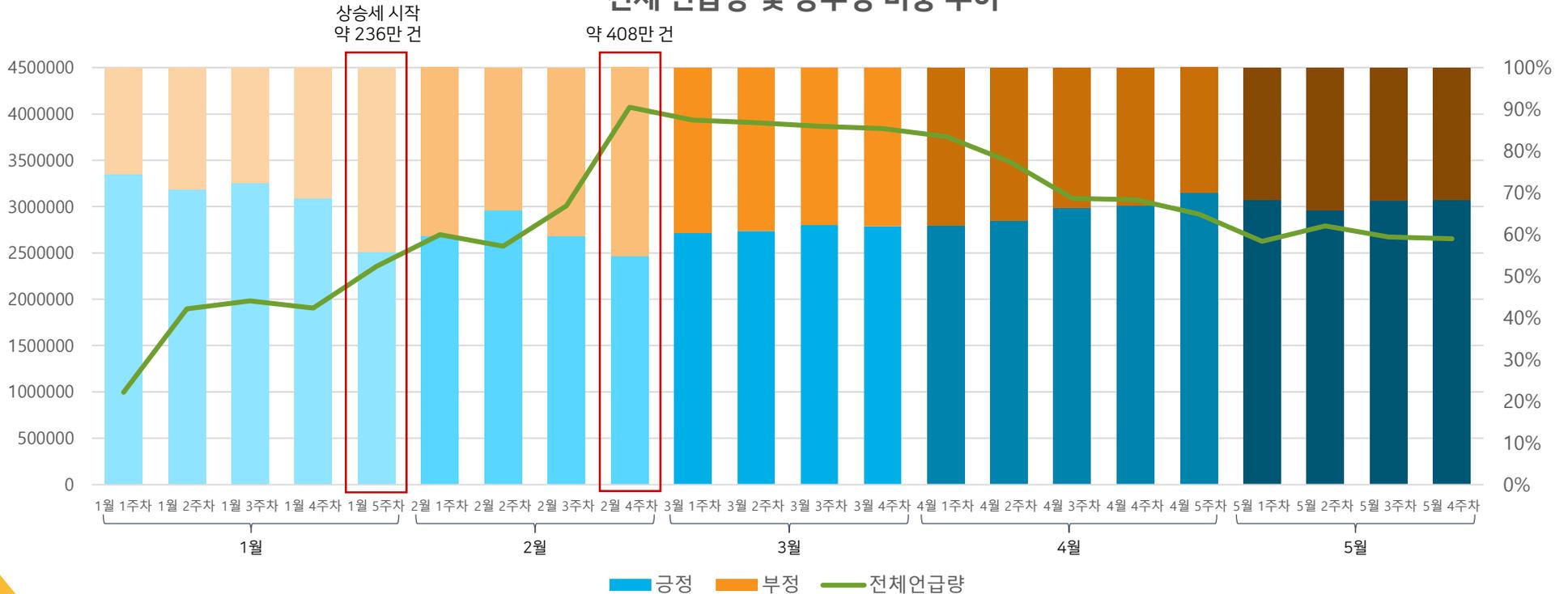
II. 코로나19 언급량 추이

1. 코로나19 언급량 및 긍부정 추이

코로나19 관련 SNS 언급은 1월 마지막주에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2월 4주차에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음

-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의 주간 언급량 및 긍/부정 언급 비중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음
- 1월 중순에 일주일에 200만 건 가량이었던 언급량이 1월 마지막주, 설 연휴가 종료된 이후부터 상승세가 시작되며 주간 약 236만 건의 언급량을 보임
- 2월 하순 들어 31번 환자 발생 및 대구경북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WHO에서 코로나19의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시키는 시기의 주간 언급량은 약 408만 건으로 나타나 조사 기간 중 가장 높은 언급량을 기록하였음
- 1월 마지막주에 부정적 언급이 40%를 넘으며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40% 내외로 언급되다가 2월 말에 48%가량의 매우 높은 비중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였음

전체 언급량 및 긍부정 비중 추이



설 연휴 이후 네 번째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폭증하며 하루 평균 약 40만건의 글이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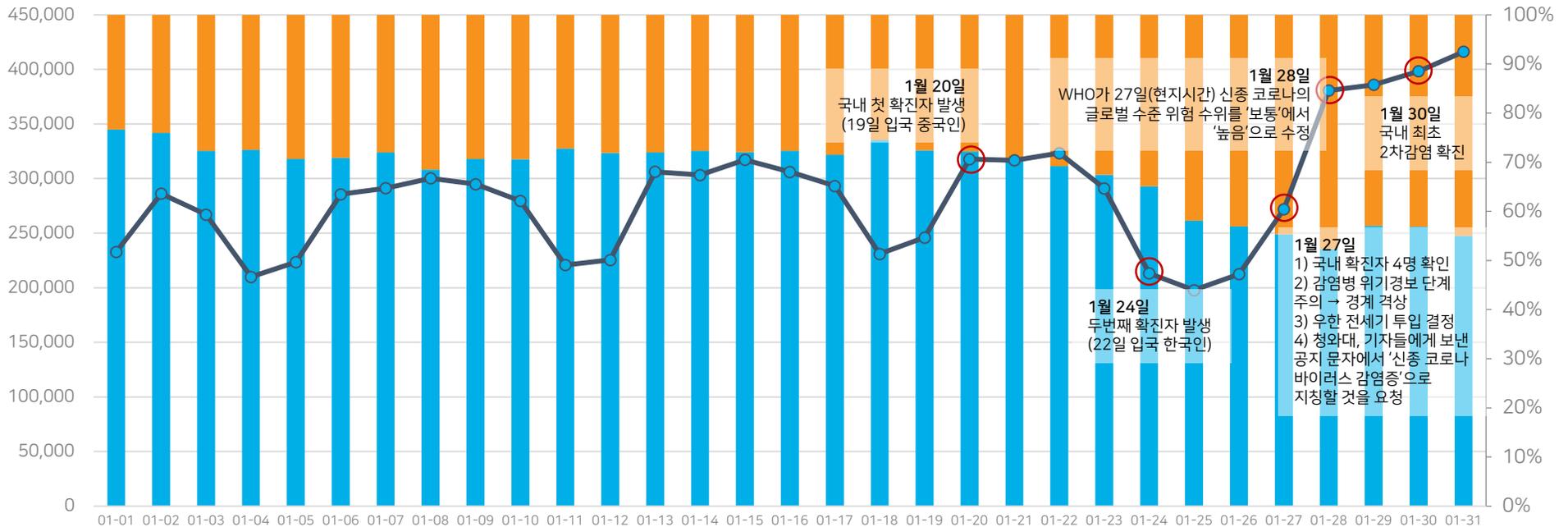
○ 1월 언급량 : 8,845,515 (일평균 285,339건), 언급량이 등락을 지속하다가 설 연휴가 종료된 28일부터 언급량이 크게 상승하였음

-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일에 잠시 언급량이 높아졌으나 3일간 비슷한 언급 수준을 보인 이후 하락함
- 설 연휴 이후 네 번째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 이후부터 언급량이 크게 증가

○ 1월의 부정언급 평균 32%, 긍정언급 평균 68%으로, 하순에 부정 언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을 보임

- 1월 중반까지 20%대를 유지하던 부정적 언급 비중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월 28일에 가장 높은 47.6%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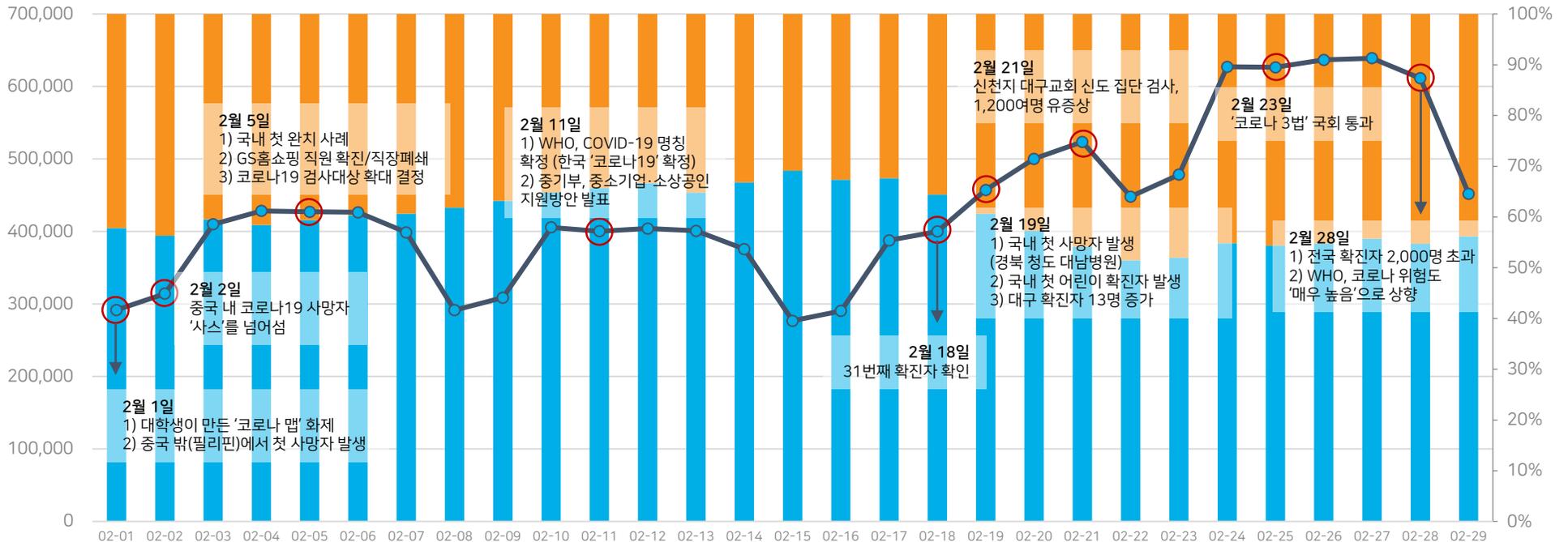
1월 언급량 변화



2월은 가장 많은 31번째 확진자 확인을 기점으로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며 부정적 언급 비중도 증가하였음

- 2월 언급량 : 12,638,937 (일평균 435,825건),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확인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며 언급량 또한 증가하였음
 - 2월 마지막주에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2,000명을 초과하는 등 가파른 확산과 함께 언급량 증가
- 2월의 부정언급 평균 40%, 긍정언급 평균 60%으로 부정 언급 비중이 1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남
 - 부정 언급 비중은 2월 중순에 잠시 감소하다가 2월 18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월 22일부터는 40%를 넘는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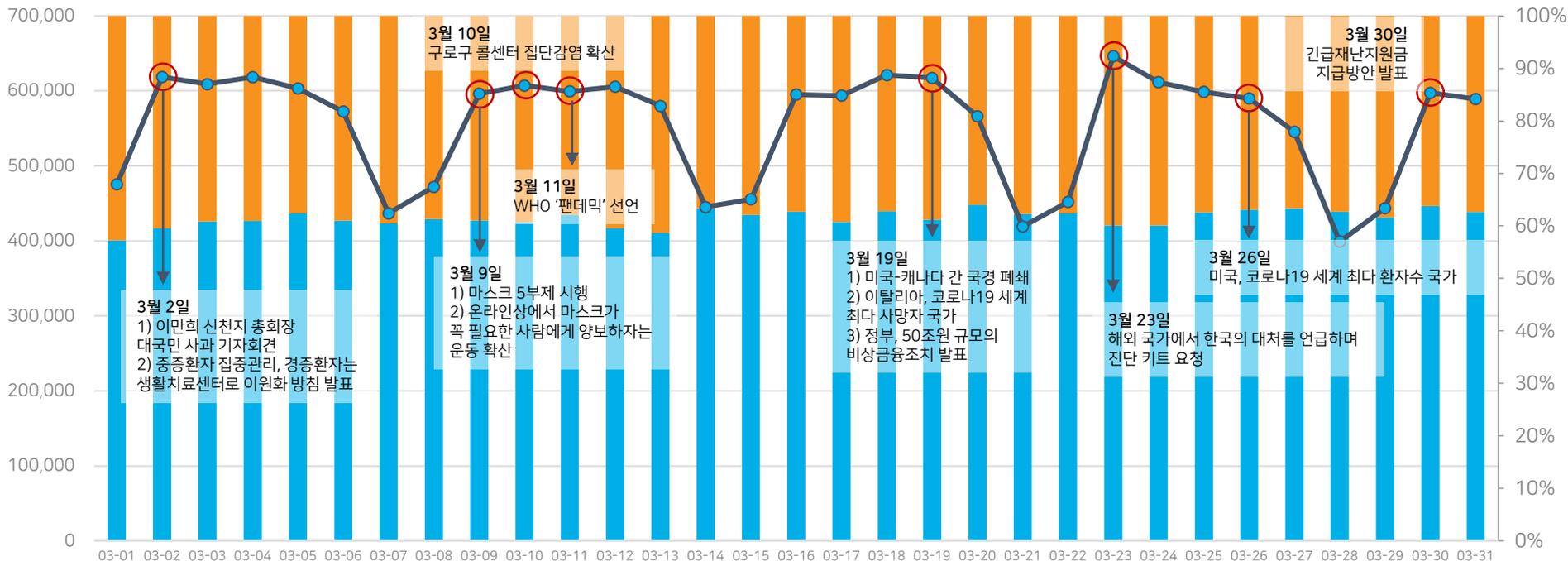
2월 언급량 변화



3월은 평일 기준 하루 60만건 내외의 언급을 유지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높게 유지되었으며, 부정적인 언급이 약 40%를 차지하였음

- 3월 언급량 : 17,179,487건 (일평균 554,177건), 주말에 언급량이 감소하고 주중에 증가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계속 높은 수준으로 언급량이 유지됨
- 3월 첫째주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이 화제가 되었으며 둘째주에는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확산과 WHO의 팬데믹 선언이 이어짐
- 셋째주부터는 이탈리아, 미국 등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화제가 되며 전 세계적인 유행을 언급하였고, 넷째주에는 해외 국가에서 한국의 대처를 언급하는 뉴스들이 이어지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소식들이 대내외적으로 화제가 되었음
- 3월의 부정언급 평균 38%, 긍정언급 평균 62%으로 2월에 비해 부정 언급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였으나 큰 변동은 없이 약 40% 전후로 나타남

3월 언급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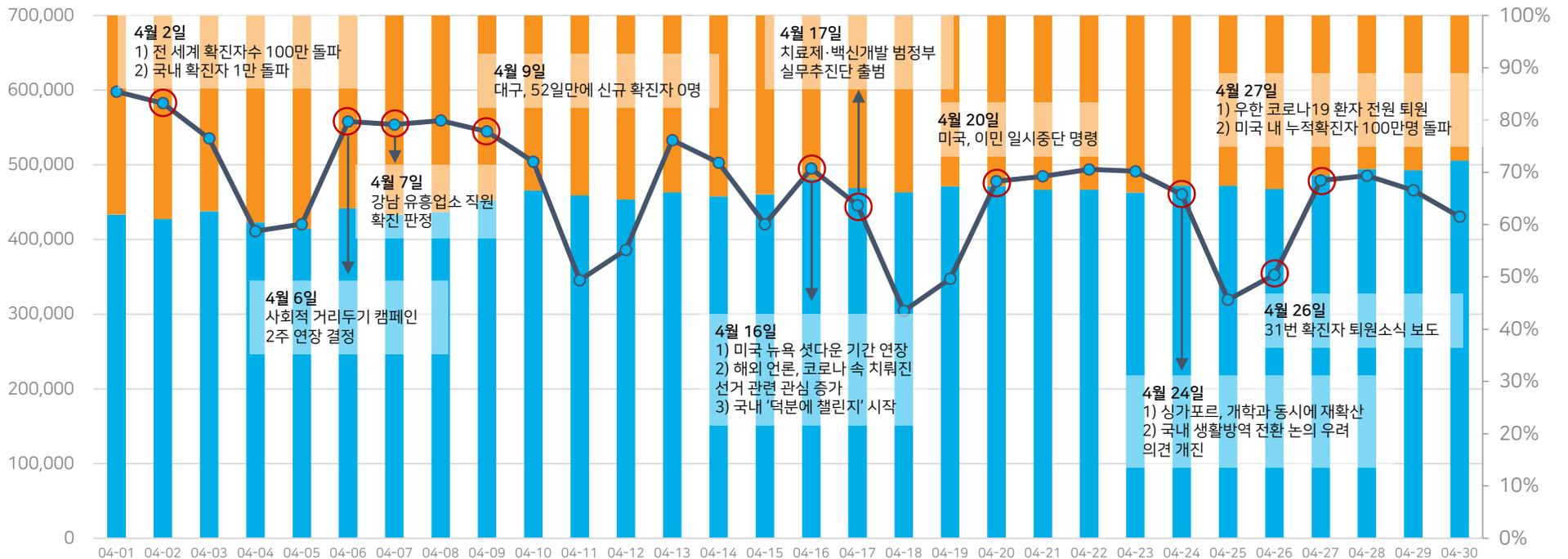
4월은 전월 대비 언급량이 다소 감소 추세로 접어들며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서 나타남

○ 4월 언급량 : 13,991,456건 (일평균 466,382건), 3월에 비해 언급량이 다소 감소 추세로 접어듦

- 코로나19의 유럽 및 북미의 확산세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 확산세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언급량 역시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임
- 4.15 총선 이후에도 확산이 눈에 띄지 않았으며 슈퍼 전파자로 불린 31번 확진자의 퇴원소식 등이 이어지며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등이 논의되었음. 그러나 이와 함께 개학과 동시에 재확산된 싱가포르의 사례가 알려지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남

○ 4월 부정언급 평균 34%, 긍정언급 평균 66%으로 부정적인 언급의 비중이 3월보다 감소하였으며, 4월 후반으로 갈수록 꾸준히 감소하여 4월 30일에는 28%으로 낮아짐

4월 언급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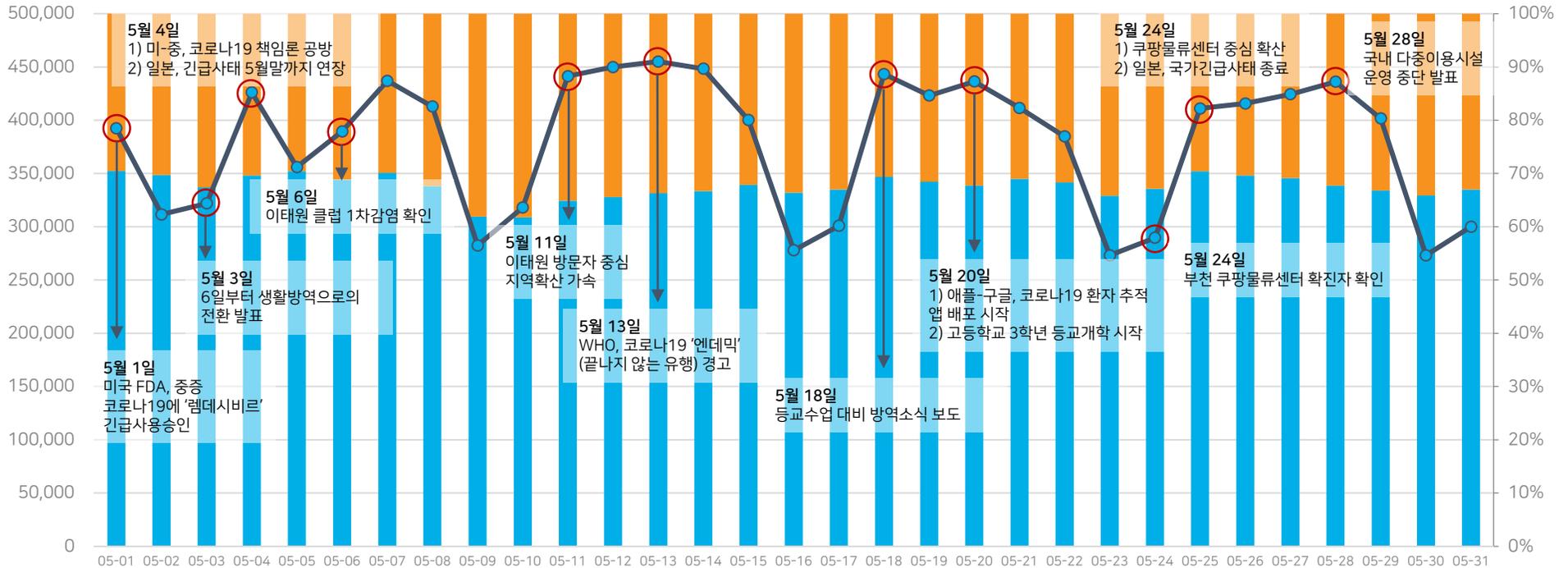
5월 초 연휴 이후 이태원 지역감염 확산으로 언급량 감소세 주춤하며 부정적인 글의 비중 역시 소폭 상승하였음

○ 5월 언급량 : 11,746,249건 (일평균 378,911건), 4월에 비해 언급량이 다소 감소하였음

- 4월 하반기에 확산세가 줄어들며 5월 3일에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발표하였으나 5월 초 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이 확산되며 언급량의 감소 추세가 주춤하는 모습임
- 세번째주부터는 등교개학이 시작되며 학교 방역과 어린 아이들의 등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온라인에 작성되었음
- 5월 하반기에는 이태원에서 시작된 감염이 N차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물류센터, 콜센터 등을 통해 본격적인 추가 확산이 시작됨

○ 5월의 부정언급 평균 32%, 긍정언급 평균 68%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부정적 언급의 비중이 5월 초 연휴 이후부터 다시 소폭 상승하였음

5월 언급량 변화



Ⅲ. 코로나19와 혐오표현의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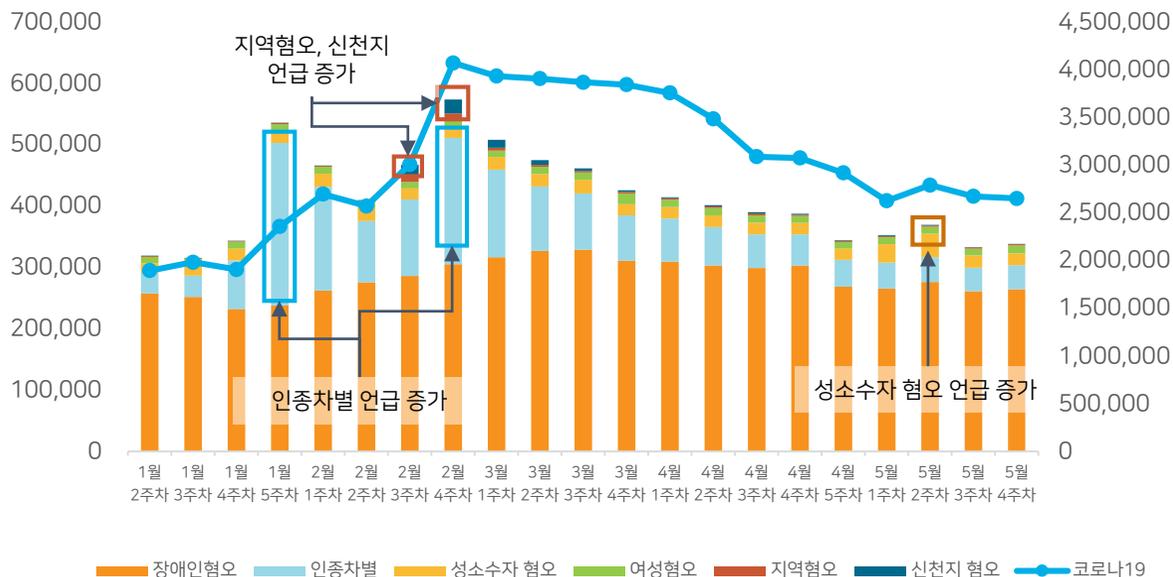
1. 장애인혐오
2. 인종차별
3. 성소수자 혐오
4. 여성혐오
5. 지역혐오
6. 종교(신천지)혐오

1. 코로나19와 혐오발언 언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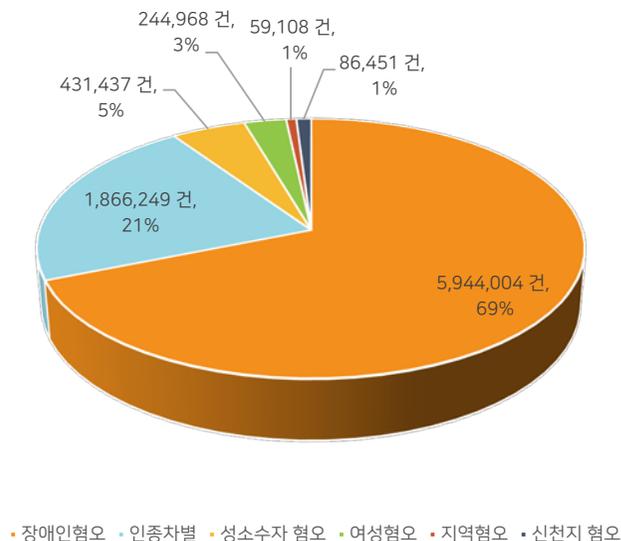
다양한 카테고리 중 장애인 혐오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인종차별 및 성소수자, 지역혐오, 신천지혐오는 언급량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임

-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6개의 혐오 및 차별 카테고리의 주간 언급량들을 정리한 그래프를 보면, '애자', '병신' 등이 포함된 장애인혐오 발언이 꾸준히 높은 언급량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인종(이주민)차별, 성소수자 혐오, 여성혐오, 지역혐오, 신천지 혐오 등의 순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분석됨
- 분석기간 내에서 카테고리 중 인종차별, 성소수자, 지역혐오, 신천지혐오는 평균적인 언급량에서 벗어나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19와 혐오발언 언급량 비교



언급량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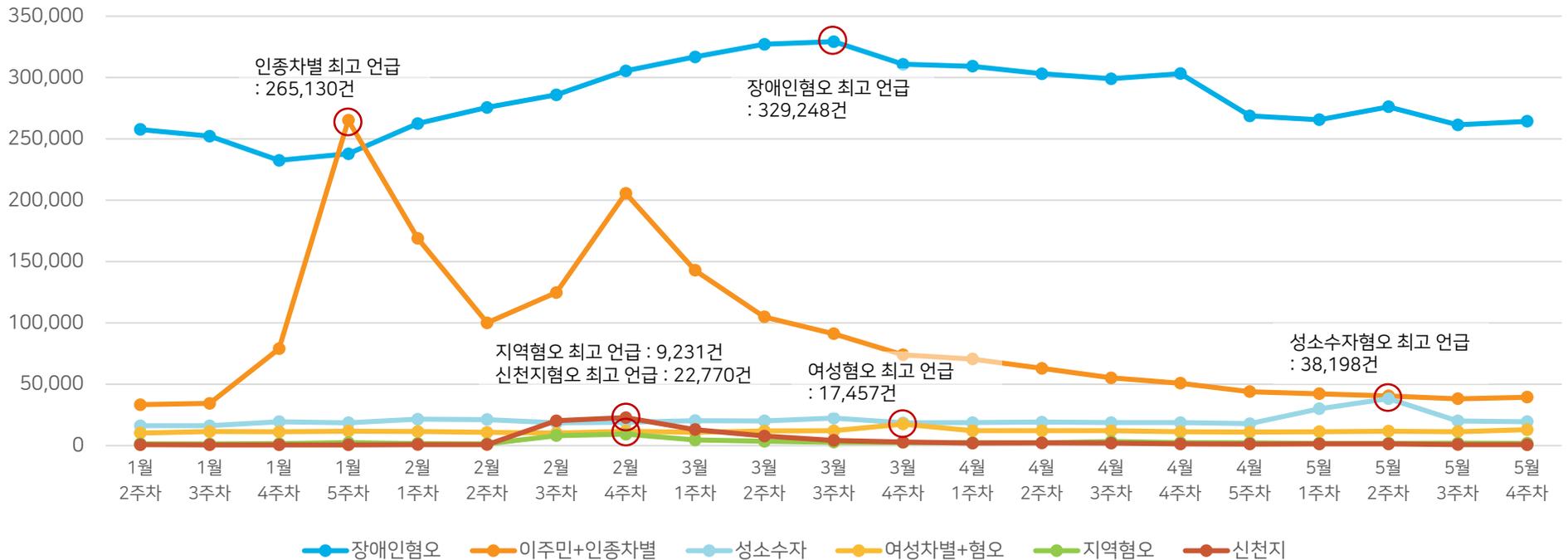
* 주별 날짜 개수를 맞추기 위해 1월 1주차와 5월 5주차 자료는 제외하였음

1. 코로나19와 혐오발언 언급량 - 카테고리 별

장애인혐오는 일상화된 욕설로 높은 언급을 보이며 일부 혐오발언은 코로나19 언급 양상에 따라 증가 및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남

- 여섯 개의 카테고리 중 **장애인혐오** 표현은 하루 평균 약 4만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애자', '병신', '고자', '또라이'와 같은 표현들이 **일상생활에서 욕설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 높은 언급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인종차별 발언은 하루 평균 12,400여건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통해 많이 언급되며, 1월 마지막주와 2월 마지막주에 두 배 이상의 언급을 보이며 상승하였고 4~5월은 다시 하락하여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슷한 언급량을 보임
- 성소수자 혐오 발언은 하루 평균 2,900여건 전후로 나타나며, 특히 2020년 19~20주(5월 2~3주)에 크게 상승했다가 감소하였음
- 지역혐오와 신천지 혐오발언은 타 혐오발언에 비해 언급량이 비교적 적으며, 2월 3~4주차에 가장 높은 언급량을 기록하였음

혐오발언 별 언급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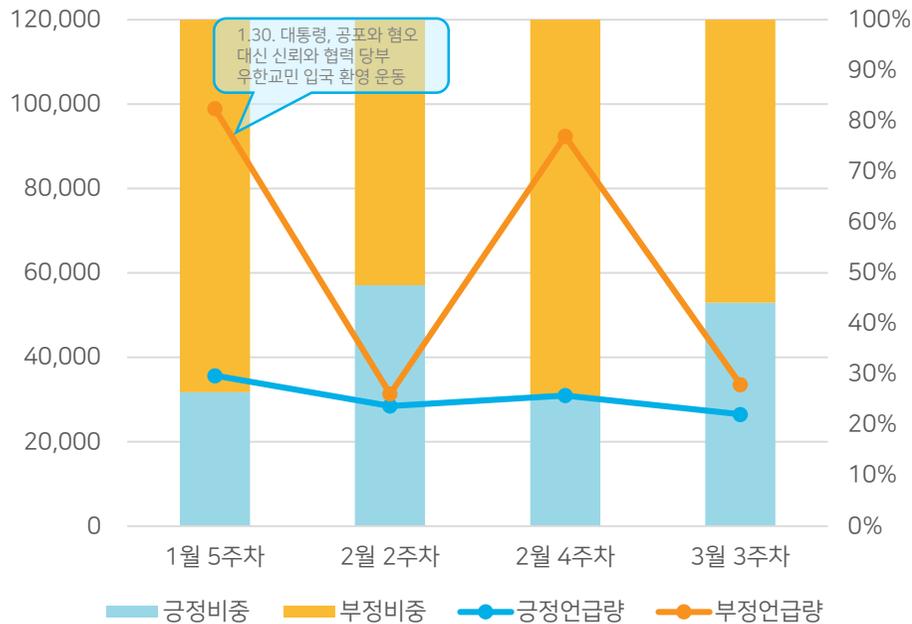


* 주별 날짜 개수를 맞추기 위해 1월 1주차와 5월 5주차 자료는 제외하였음

Ⅲ 2. 언급 차이 분석 - 인종차별(2)

인종차별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언급이 큰 변동을 보이며, 정부 및 인권위의 연대 강조 이후 부정 언급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월에 다시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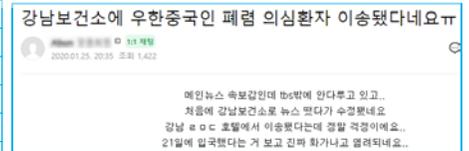
- SNS상 인종차별 언급 중 부정적인 언급이 큰 시기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긍정 언급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남**
- 1월 마지막주에는 '의심당하다'가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언급하거나 중국인에 대한 감염 의심 등이 언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음
- 1월 30일과 2월 초에 걸쳐 정부 및 인권위원회 등의 연대 강조 및 우한교민 입국 환영 입장 표명 등이 있었으며, 그 이후인 2월 2주차에는 부정 언급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깔끔하다'라는 긍정의 연관어**가 18위로 등장하였음
- 2월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인종차별 언급이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 상황이 중국인의 입국금지와 관련이 있느냐 아니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여전히 '우한폐렴'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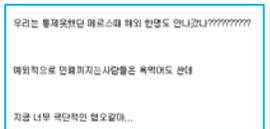
긍정 단어 연관어 순위

연관어순위	1월 5주차	2월 2주차
1	걱정	못한다
2	못한다	가능하다
3	가능하다	모르다
4	의심당하다	최고
5	모르다	맛있다
6	중요하다	걱정
7	안되다	안되다
8	불안	좋아하다
9	우려하다	중요하다
10	최고	쉽다
11	사망하다	편하다
12	주의	어렵다
13	도움	도움
14	질병	힘들다
15	쉽다	힘들어지다
16	안하다	안하다
17	좋아하다	자세하다
18	어렵다	깔끔하다
19	힘들다	의심당하다
20	힘들어지다	만족스럽다

1월 말 중국인 의심환자 기사를 올린 커뮤니티 글



1월 말 극단적인 혐오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커뮤니티 글



2월 말 확진자 증가와 함께 나타난 인종차별 관련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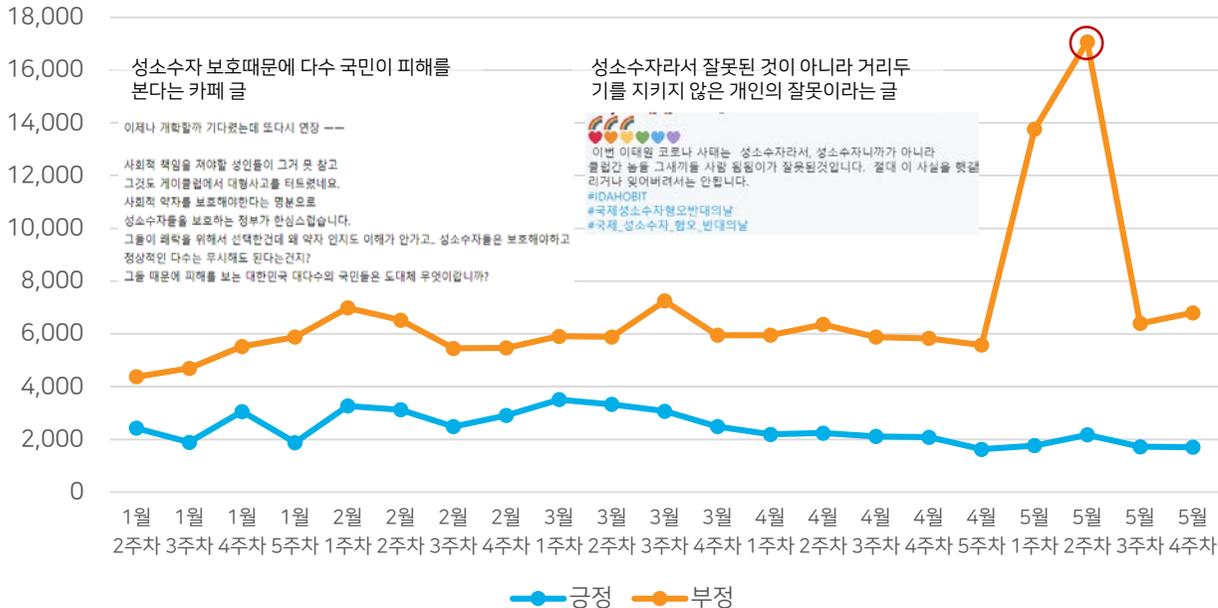


2. 언급 추이 분석 - 성소수자혐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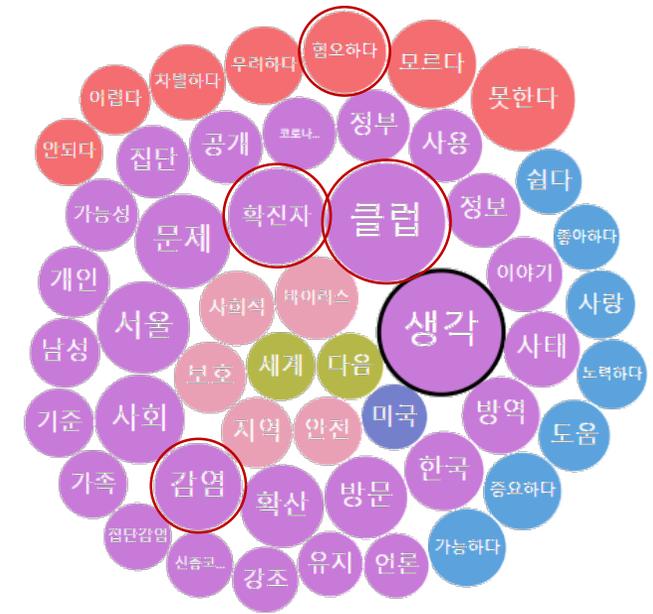
성소수자 관련 부정적 언급 비중은 70%가 넘는 높은 수준이며 5월 초에는 90%에 가까운 부정적 언급이 작성되어 매우 큰 혐오가 드러남

- SNS상에서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누고 평균을 보면, 1주일간 평균적으로 긍정 언급 2,430건과 부정 언급 6,833건으로 나타나며 백분율로는 28:72 정도의 비중으로 분석되어 성소수자 관련 **부정적 언급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5월 1~2주차의 경우 부정적 언급의 양은 평균 15,000건 내외로 상승하였으며 비중 또한 89%에 가깝게 나타나 매우 많은 부정적 언급이 SNS상에 올라온 것으로 분석됨
- 큰 언급량 변화가 있었던 5월을 중심으로 연관어를 살펴보면 '클럽'(2위), '확진자'(4위), '감염'(9위) 등으로 **코로나19와의 높은 연관성**이 나타남
- 연관어 13위인 '혐오하다' 관련 2차 연관어를 살펴보면 '차별하다'(2위), '언론'(13위), '공개'(19위) 등이 나타나며 성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반대 의견과 언론의 보도 책임, 확진자의 지나친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등이 언급된 것으로 분석됨

성소수자 혐오 긍부정 추이



5월 성소수자혐오 연관어 TOP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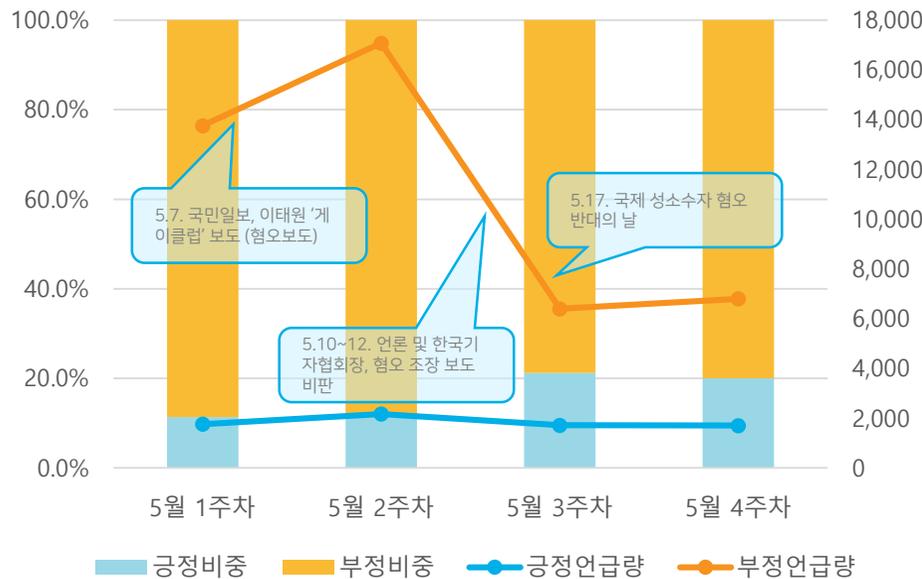


* 주별 날짜 개수를 맞추기 위해 1월 1주차와 5월 5주차 자료는 제외하였음

III 2. 언급 추이 분석 - 성소수자혐오(2)

5월 초 '게이클럽' 보도로 부정 언급이 증가하였으나 언론 등의 혐오 조장 보도 비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거치며 부정 언급이 감소하였음

- 성소수자 혐오 관련 언급은 5월에 가장 큰 변동을 보임. 5월 1~2주차에 부정적인 언급의 양 및 비중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월 2주차에는 1주간 17,073건의 부정적인 언급이 작성되며 88.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5월 10일부터 언론 및 한국기자협회장 등이 한 언론사의 혐오 조장 보도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온라인 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멈추어야 한다는 글들이 작성되었음. 그 이후인 5월 3주차에는 부정 언급량이 6,396건으로 전 주에 비해 1만 건 이상 감소하며 비중 역시 78.8%로 감소하였음
- 부정 언급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5월 2~3주차의 연관어를 보면, '혐오하다'라는 연관어가 2위에서 5위로 하락하였으며 1~6위 모두 부정적인 단어였던 것에 비해 3주차에 '사랑', '좋아하다'라는 연관어가 각각 4위와 6위를 차지하였음
- 성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언론 기사나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관련 언급을 SNS로 공유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한다는 글이 작성되었으며 이태원발 코로나19의 2~3차 감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언급의 양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공부정 단어 연관어 순위

연관어순위	5월 2주차	5월 3주차
1	못한다	못한다
2	혐오하다	모르다
3	모르다	중요하다
4	차별하다	사랑
5	안되다	혐오하다
6	우려하다	좋아하다
7	가능하다	가능하다
8	중요하다	도움
9	좋아하다	안되다
10	도움	차별하다
11	사랑	쉽다
12	어렵다	노력하다
13	안하다	주의
14	걱정	어렵다
15	비난하다	최고
16	노력하다	싸우다
17	쉽다	빠지다
18	힘들다	안하다
19	힘들어지다	힘들다
20	최고	힘들어지다

5월 2주차 이태원 2~3차감염 우려와 함께 혐오발언을 작성한 커뮤니티 글

이날 0시 기준 클럽 관련 신규 확진 17명 중 10명은 접촉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sec=001&aid=0011611934>
 아직 안잡히고 숨은 용종충이 견역시킨 사람들은 대강 다음 주부터 터져나올듯.
 민식이법 만들 시간 있으면 막심 썬세 특별법이나 만들어서 그려나

5월 3주차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언급하는 트위터 글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입니다. 기분 마음으로 축하를 보내요. 우리 모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IDAHOBIT2020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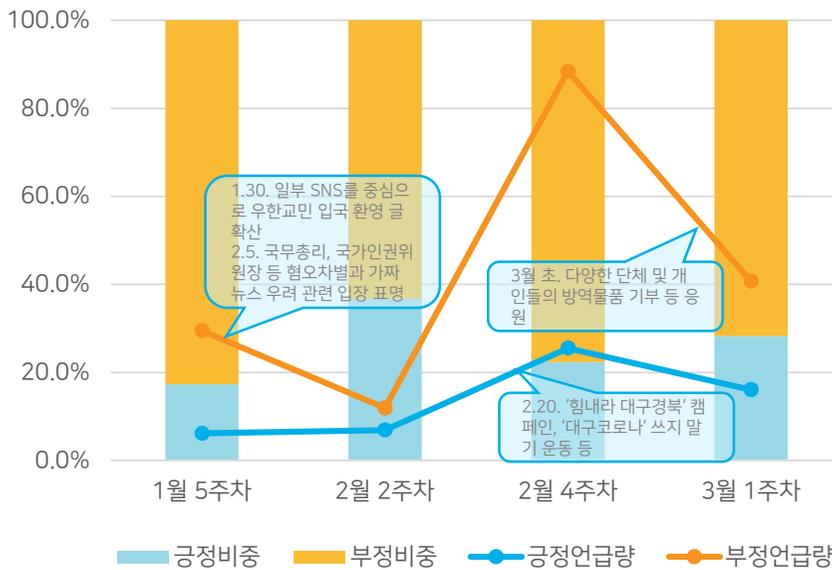
5월 3주차 기사를 인용해 차별을 반대하는 의견을 쓴 트위터 글

인간차별 권리는 누구도 없다. 동성애 반대하지만 성소수자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은 퀘변이다. 북한인권 외치면서 새터민 차별하고 인종차별 반대한 다며 이주노동자 갈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입으로는 남녀차별 반대하면서 머느리가 딸 낳으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시어머니도 있다. 각각 틀어켜 보라.
 @hankookilbo · 5월 17일
 소수자 · 약자 · 피해자의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과, 이에 반대하는 운동은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hankookilbo.com/News/Read/2020...

III 2. 언급 추이 분석 - 지역혐오(2)

우한 교민의 국내 수용 및 대구 중심의 감염 확산으로 부정적 언급이 나타나며, 정부와 언론, 일반의 노력을 통해 부정적 언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지역혐오 관련 언급은 1~2월에 가장 큰 변동을 보임. 특히 2월 4주차에는 1주간 4,485건의 부정적인 언급이 작성되며 2월 전체 언급량의 74.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1월 5주차에 가장 많은 언급량을 기록한 것은 1월 30일로, **우한 교민들을 어느 지역에 수용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차별의 결과라는 글들이 작성되며 언급량이 증가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지원한 반면 **국내 지원에 소홀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며 부정적 언급이 증가하였음
- 일부 SNS를 중심으로 우한교민 입국 환영 글이 작성되고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장 등의 입장 표명 이후 부정적 언급량은 감소하였으며, 2월 2주차에는 596건으로 1월 5주의 1,474건 대비 1/3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2월 4주차에는 다시 주간 부정 언급량이 4,42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 중 부정 언급량이 가장 많았던 2월 23일은 커뮤니티와 트위터, 블로그에서 모두 언급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구페럼', '대구코로나'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며 **대구지역 차별발언이 다수** 작성되었음
- 3월 1주차에는 부정적 언급의 양이 2,000건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동시에 '대구돕기', '마스크 기부' 등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구호활동 관련 글**이 작성되었음



연관어순위	1월 5주차	2월 4주차
1	명칭	대구
2	생각	페럼
3	안되다	신천지
4	못한다	바이러스
5	모르다	코로나 바이러스
6	구리다	우한페럼
7	맛있다	마스크
8	좋아하다	생각
9	사용	정부
10	가격	지역
11	맛집	경북
12	추천	확산
13	구매	못한다
14	시키다	감염
15	지역	추천
16	강원도	한국
17	속초	사태
18	음식	병원
19	가능하다	신종코로나
20	서울	교회

2월 2주차 '대구, 경북분들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있을까 아니고, 민관이 힘을 합쳐 이 사태를 이겨낼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구코로나 이만말 하지말고 좀!!

3월 1주차 '대구페럼'이 비하발언인 것처럼 '우한페럼' 역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커뮤니티 글

아직도 중국코로나, 우한페럼이라고 하는 사람들... [7]
 말해요.
 그런 말 쓰지 말자고 하는 댓글에 대놓고 비아냥 거리는 댓글이 울음.
 저런 사람들이 대구페럼, 한국코로나한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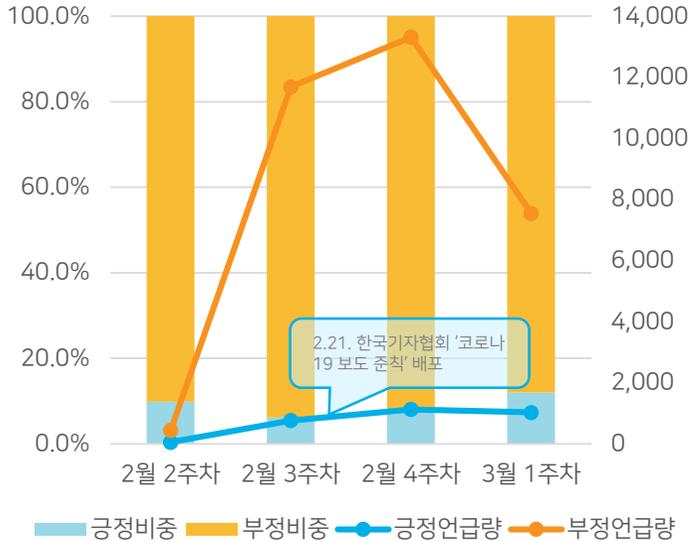
3월 1주차 민간단체의 대구지역 방역용품 기부

#사람사랑뜻사람대구코로나19적소독증지원
 #대구돕기
 #코로나19대구적소독증지원
 사람사랑뜻사람에서는
 대구시청 재난관리과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손소독용 티슈를 전달하였습니다.
 약 2000장을 보냈습니다.

2. 언급 추이 분석 - 종교(신천지)혐오(2)

신천지 혐오 언급은 2월 3주차에 기존 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관련 이외에도 '이단', '사이비' 등의 표현이 크게 나타남

- 신천지 혐오 관련 언급은 2월 하반기부터 3월 초 사이에 가장 큰 변화를 보임. 코로나19 이전에는 주간 400건 내외의 언급량을 보이던 부정 언급량이 2월 3주차에 11,000여건, 4주차에 13,000여건이 작성되며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2월 3주차의 경우 부정적 언급량이 전 주 대비 400%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부정 언급 비중이 약 94%를 차지할 정도로 극히 높은 비중을 나타냄. 그러나 4~5월에는 부정적 언급이 줄어들면서 평균 81.6%의 부정적 언급 비중을 보이며, 1~3월 평균인 90.6%에 비해 약 9% 정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1월 연관어를 보면 특정 종교로서의 신천지가 언급되며 '교회', '성경', '기독교', '공부' 등 종교 관련 단어가 상위 연관어를 차지하였으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월 3~4주차에는 '대구', '사이비종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상위 연관어로 올라서며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라는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글들이 많이 작성되었음. 동시에 '이단'이라는 단어 역시 많이 언급되었으며, 신천지라는 **종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경험들, 소문** 등이 퍼져나갔음
- 4월 2주차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이나 유튜버들의 종교 연관성에 대한 언급들이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신천지혐오와 함께 언급됨



연관어순위	1월	2월 3~4주차	4월 2주차
1	교회	대구	생각
2	생각	교회	집단
3	성경	생각	못한다
4	기독교	사이비종교	교회
5	공부	사이비 종교	단체
6	세계	바이러스	방송
7	문제	못한다	기독교
8	다음	정부	모르다
9	청년	집단	영상
10	전도	이만희	대표
11	모르다	모르다	비판
12	센터	코로나 바이러스	유튜브
13	사용	감염	노력하다
14	성도	한국	인물
15	인터넷	사태	가깝다
16	서울	확산	대통령
17	인식	지역	탈퇴
18	영상	문제	인식
19	지역	이단	총선
20	이야기	방역	정책

1월, 카페와 커뮤니티 등에서 전도방식 및 수료식에 대한 글 반복적 게시

사이비 신천지 10만 수료식 수료생들의 영별이 인생	네이버카페	20-01-06 13:35
성인회 신천지 10만 수료식 수료생들의 영별이 인생	네이버카페	20-01-06 13:35
사이비 신천지 10만 수료식 수료생들의 영별이 인생	네이버카페	20-01-06 13:25
사이비 신천지 10만 수료식 수료생들의 영별이 인생	네이버카페	20-01-06 13:25
사이비 신천지 10만 수료식 수료생들의 영별이 인생	네이버카페	20-01-06 13:35
사이비 신천지 10만 수료식 수료생들의 영별이 인생	네이버카페	20-01-06 13:34

2월 말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신천지 관련 경험이나 사이비에 대한 반감을 언급하는 글들이 다수 작성됨

원래 신천지라던가 사이비 싫어했었는데,,, 예전 가게에서 친해졌던 언니랑 이번달 조에 침 밖에서 만났을 때 그 언니가 신천지사람이랑 짜고치고 내 정보 팔아서 나 끌어들이려고 했던일 있었어서 ㅋㅋㅋㅋ 혐오하게됐는데 이번 일로 더 극극극하게될 진짜 이번기회에 망해서 세상에서 사라져버려;

4월 중순 총선을 앞두고 신천지와 정치인들의 관계를 언급하는 블로그 글

지방선거 앞두고 이단들의 정치권 접근

1020. 4. 13. 10:59

이단들은 그들이 활동해 왔을 실어줄 권력이 필요하다. 마침 그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단과 정치인은 서로가 공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4-16 총선을 앞두고 이단들은 정치인들에게 브리핑을 보내며 은밀한 투쟁을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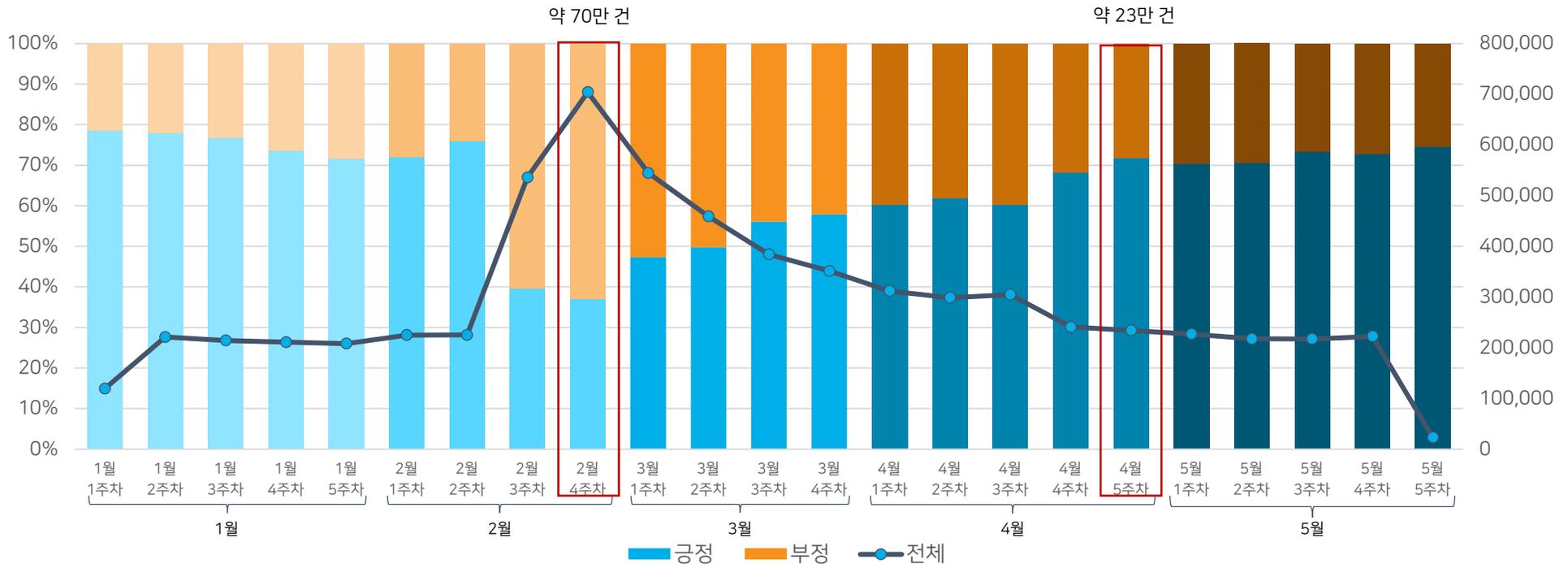
IV. 선별 주제 분석

1. 대구
2. 확진자
3. 중국인

'대구' 관련 언급 및 부정적 언급 비중은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2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4월 말 경에 코로나19 이슈 반영 전으로 복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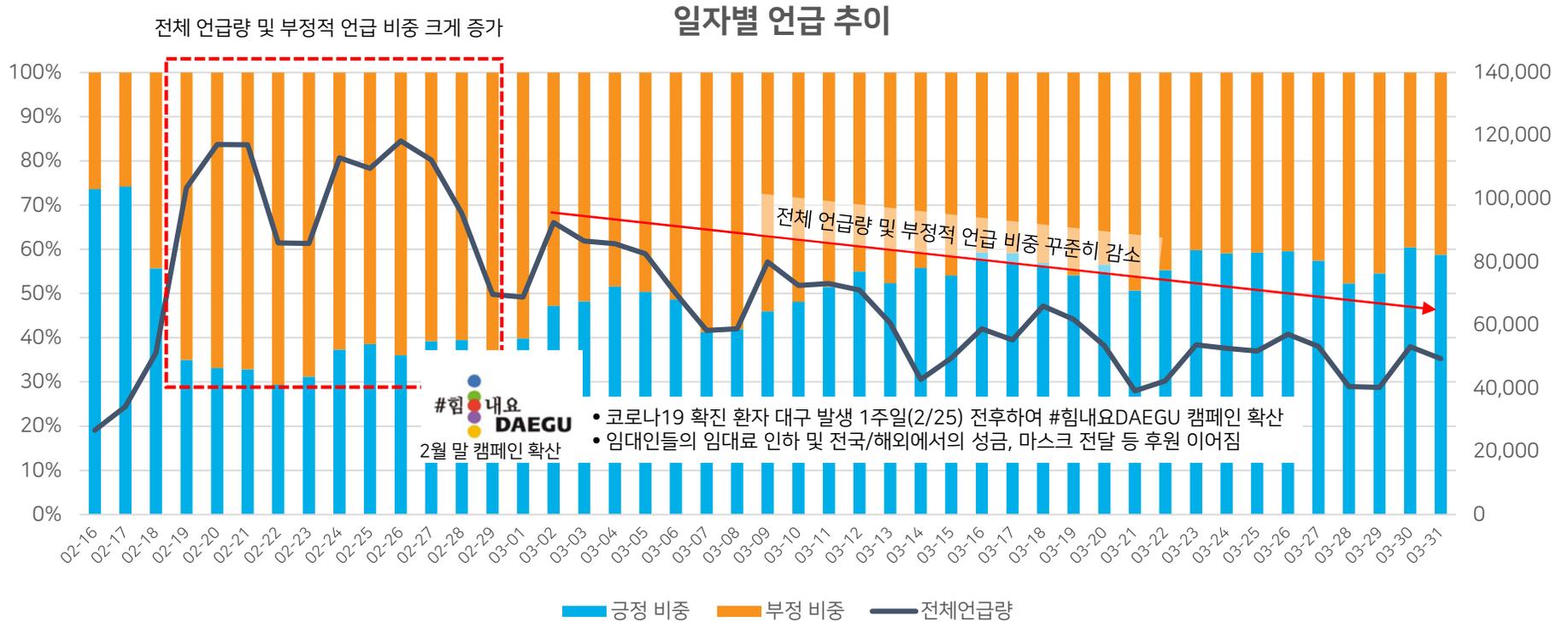
-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의 주별 언급량 및 긍부정 비중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음
- '대구'를 언급하는 글은 주간 평균 20만건 내외였으나 2월 하순(18일 이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여 2월 마지막주에는 70만건의 언급량을 기록하였음
- 이 시기는 '코로나19'의 언급이 가장 높았던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의 증가와 함께 대구의 언급이 증가한 것임**
- 특히 2월 하반기의 긍정 대비 부정적 언급량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이전까지 20%대였던 부정적인 언급의 비중이 60%가 넘어가며 매우 큰 증가를 보임
- 그러나 3월 초반부터는 전체 언급량과 부정어의 비중 모두 점차 감소 추세로 들어섰으며, 4월 마지막주 들어서는 언급량과 부정어 언급 비중 모두 코로나19 이슈 반영 전으로 복귀하였음

전체 언급량 및 긍부정 비중 추이



2월 중순 이후 전체 언급량과 부정적 언급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월 하순의 캠페인 이후 전체 언급량 및 부정적 언급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였음

- 2월 18일 이후 전체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정적 언급의 비중 역시 20%대에서 60%대로 크게 증가하였음
- 2월 하순에 이어진 '힘내라 대구·경북' 캠페인 이후, 3월 초부터 '대구' 관련 전체 언급량 및 부정적인 언급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기 시작하였음
- 온라인상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힘내요DAEGU, #힘내라대구경북 등의 **응원 글이 확산**되었으며 전국 및 해외 동포들의 **성금과 물품 후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
-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할인** 등도 이어지며 지역사회 내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남
- 3월 말에는 전체 언급량이 하루 5만건 내외로 최고 언급량 시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부정적인 언급의 비중 역시 40% 수준으로 하락



'대구' 연관어로 2월에 '최선 다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3월까지 언급이 많았으며, '불안' 단어의 순위는 2월 이후 순위가 하락하다가 5월에 다시 상승하였음

-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대구'의 월별 긍부정 관련 단어를 언급량 순서대로 1위부터 20위까지 살펴보았음
- 긍정 단어 중에서는 '맛있다', '깔끔하다', '좋아하다'와 같은 단어들의 언급량이 2~3월에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맛집이나 외출 경험 등과 연관된 단어로 판단됨
- 특히 '최선 다하다'라는 단어는 2월과 3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남
- 부정 단어 중에서는 '우려하다', '사망하다', '지치'와 같은 단어들이 2~3월에 매우 큰 폭으로 언급이 증가한 동시에, '의심당하다'라는 단어는 2~3월에 순위가 상승하였음
- '불안'이라는 단어는 2월에 매우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으나 3월 이후로는 순위가 하락하며 '대구'와 관련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된 모습을 보임

긍정 단어 추이

순위	1월	2월	3월	4월	5월
1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2	최고	최고	도움	최고	최고
3	중요하다	중요하다	노력하다	도움	맛있다
4	노력하다	노력하다	최고	원하다	중요하다
5	맛있다	도움	원하다	노력하다	노력하다
6	좋아하다	맛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도움
7	쉽다	원하다	자세하다	맛있다	기대하다
8	기대하다	쉽다	사랑	자세하다	원하다
9	도움	최대한	최선 다하다	기대하다	좋아하다
10	원하다	최선 다하다	행복	쉽다	쉽다
11	자세하다	자세하다	기대하다	사랑	사랑
12	깔끔하다	사랑	쉽다	좋아하다	편하다
13	편하다	기대하다	맛있다	행복	자세하다
14	유명	여명	기원	편하다	맞추다
15	사랑	좋아하다	여명	맞추다	깔끔하다
16	맞추다	빠지다	최대한	빠지다	빠지다
17	즐기다	가깝다	둑다	가깝다	가깝다
18	행복	편하다	빠지다	강하다	즐기다
19	가깝다	맞추다	맞추다	잘하다	넓다
20	넓다	깔끔하다	즐겁다	깔끔하다	강하다

* 월별로 변동 폭이 큰 단어들 색깔별로 구분하였음

부정 단어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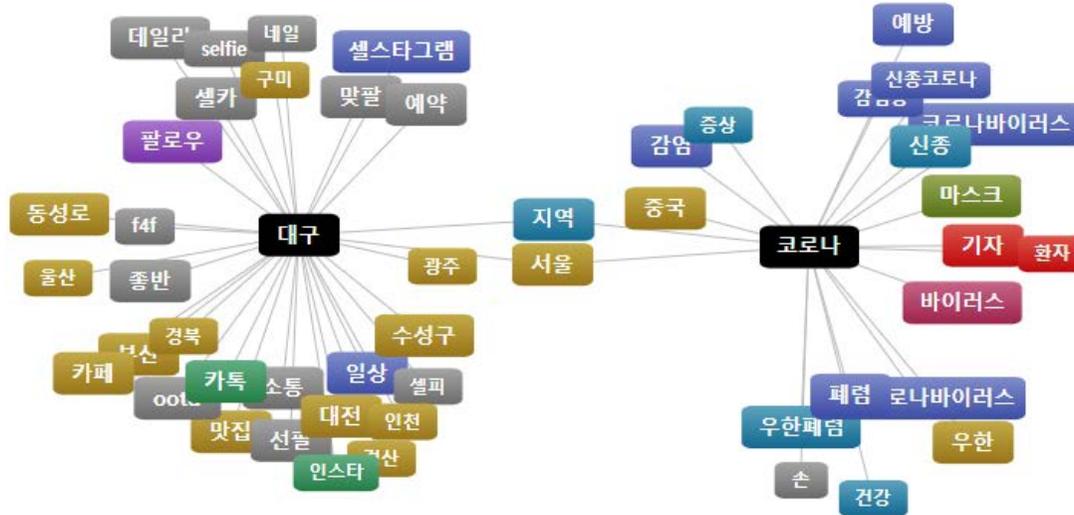
순위	1월	2월	3월	4월	5월
1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
2	모르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모르다
3	힘들다	우려하다	모르다	모르다	어렵다
4	힘들어지다	모르다	우려하다	힘들다	힘들다
5	안되다	의심당하다	사망하다	힘들어지다	힘들어지다
6	걱정	걱정	걱정	안되다	걱정
7	어렵다	제한되다	힘들다	걱정	안되다
8	부담스럽다	안되다	힘들어지다	우려하다	우려하다
9	주의	자제	제한되다	제한되다	제한되다
10	제한되다	힘들다	지적하다	사망하다	주의
11	지적하다	힘들어지다	안되다	주의	지적하다
12	안하다	불안	의심당하다	지적하다	안하다
13	우려하다	사망하다	질환	지치	지치
14	가리다	지적하다	자제	안하다	질환
15	어려움	주의	불안	질환	의심당하다
16	의심당하다	부담스럽다	고통	의심당하다	위반하다
17	질환	안하다	재난	고통	가리다
18	고통	질환	지치	위반하다	불안
19	실패	질병	주의	재난	의혹
20	구리다	지치	안하다	싸우다	사망하다

* 월별로 변동 폭이 큰 단어들 색깔별로 구분하였음

1월에 '대구'와 '코로나19'간의 언급 연관성은 낮게 나타나며 '대구' 관련해서는 '일상'과 '맛집' 등의 글이 많이 작성되었음

- 2020년 1월의 SNS언급 중 '대구'와 '코로나19'의 각각의 연관어를 분석하여 50위까지의 연관어를 산출하고, 서로 겹치는 지점을 연관어 맵으로 나타내었음
- 1월에 대구와 코로나19의 공동 상위 연관어는 '서울'과 '지역'의 두 개로 나타남
- '대구'는 일상이나 맛집 등 인증샷이나 온라인 소통과 연관된 단어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음
- '코로나19'는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되면서 발원지로 지목된 우한과 중국에 대한 연관어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마스크', '예방', '손'에 대한 관심도 크게 나타남

순위	'대구' 연관어
1	일상
2	맛집
3	부산
4	소통
5	카페
6	동성로
7	서울
8	데일리
9	맛팔
10	선팔
11	팔로우
12	예약
13	수성구
14	대전
15	ootd
16	종반
17	셀카
18	셀스타그램
19	카톡
20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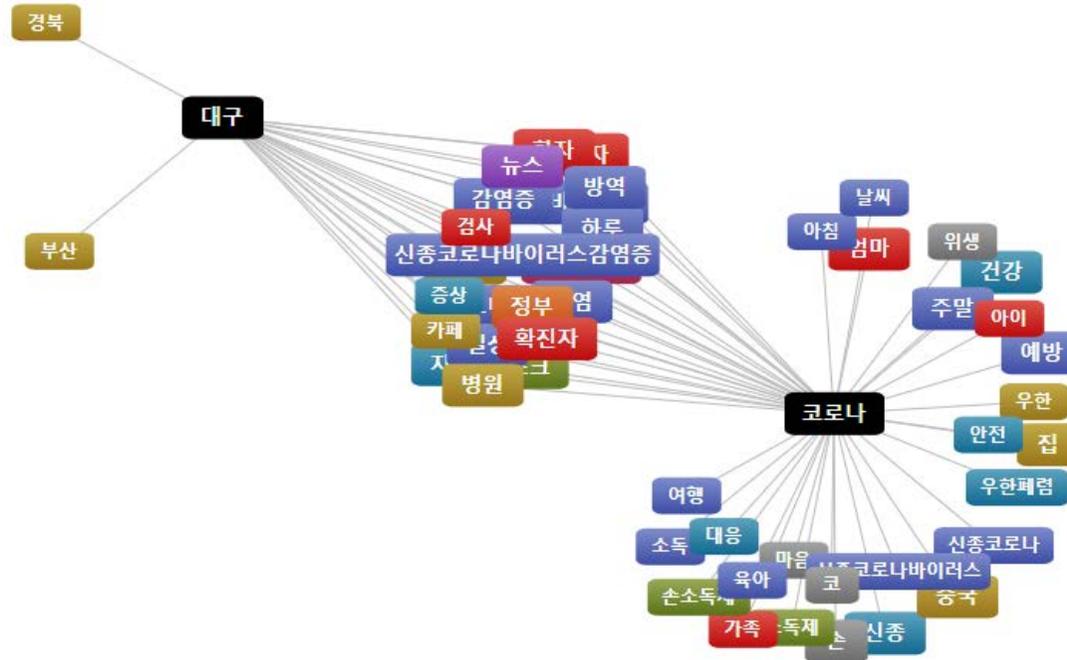
* 트위터를 제외한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언급량의 분석결과임

순위	'코로나' 연관어
1	바이러
2	코로나바이러스
3	신종
4	우한
5	마스크
6	중국
7	우한페렴
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9	페렴
10	기자
11	예방
12	감염
13	환자
14	감염증
15	손
16	신종코로나
17	지역
18	건강
19	증상
20	뉴스

2월 들어 '대구'와 '코로나19' 간의 언급 연관성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대구 관련 대부분의 상위 단어들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2020년 2월의 SNS언급 중 '대구'와 '코로나19'의 각각의 연관어를 분석하여 50위까지의 연관어를 산출하고, 서로 겹치는 지점을 연관어 맵으로 나타내었음
- 2월에 대구와 코로나19의 공동 상위 연관어는 급격히 증가한 20여개로 나타났으며, 감염이나 검사, 확진자, 병원, 마스크 등 다양한 범위에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50개의 상위 연관어 중 '코로나'와 연관되지 않은 '대구'의 상위 연관어는 '경북'과 '부산'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는 전월과 비슷한 연관어가 상위에 위치하였는데, 전월에 7위를 기록했던 '우한폐렴' 단어는 언급 순위가 하락하였음

순위	'대구' 연관어
1	코로나
2	코로나19
3	경북
4	지역
5	부산
6	일상
7	서울
8	바이러스
9	마스크
10	맛집
11	소통
12	코로나바이러스
13	기자
14	신천지
15	맛팔
16	데일리
17	카페
18	동성로
19	환자
20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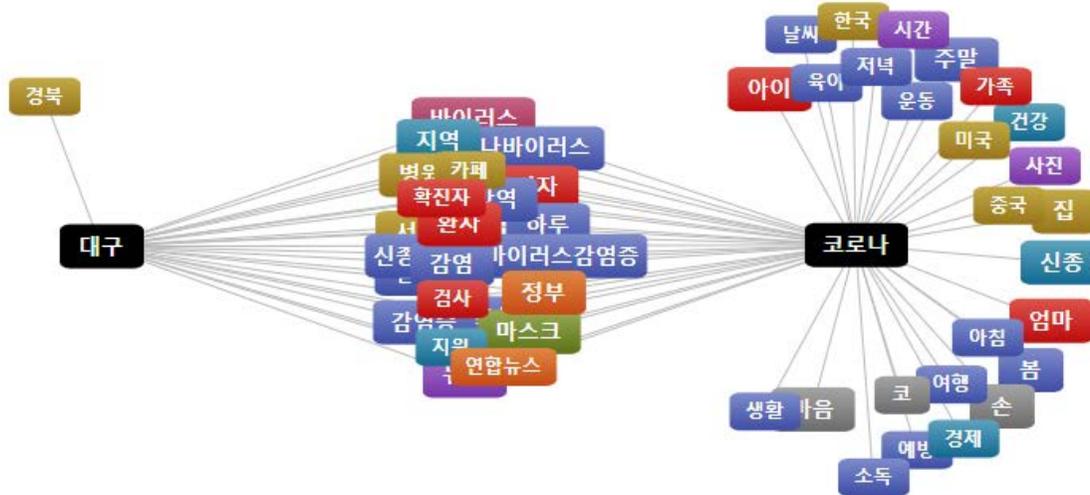
순위	'코로나' 연관어
1	바이러스
2	코로나바이러스
3	코로나19
4	마스크
5	신증
6	집
7	하루
8	기자
9	손
10	일상
11	지역
12	예방
13	건강
14	감염증
15	중국
16	엄마
17	환자
18	감염
19	뉴스
20	방역

* 트위터를 제외한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언급량의 분석결과임

3월에는 '대구'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자', '뉴스' 연관어의 순위가 전월 대비 상승하였음

- 2020년 3월의 SNS언급 중 '대구'와 '코로나19'의 각각의 연관어를 분석하여 50위까지의 연관어를 산출하고, 서로 겹치는 지점을 연관어 맵으로 나타내었음
- 3월에 대구와 코로나19의 공동 상위 연관어 개수 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대구'의 상위권 연관어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자', '뉴스' 연관어의 순위가 전월 대비 상승하였음
- '코로나19'의 상위 연관어 분석 결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며 '일상'이 위협받는 데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가족 관련 단어인 '엄마', '아이' 역시 많이 언급됨

순위	'대구' 연관어
1	코로나
2	코로나19
3	경북
4	지역
5	서울
6	기자
7	일상
8	바이러스
9	마스크
10	부산
11	코로나바이러스
12	감염증
13	소통
14	뉴스
15	데일리
16	맞팔
17	환자
18	병원
19	맛집
20	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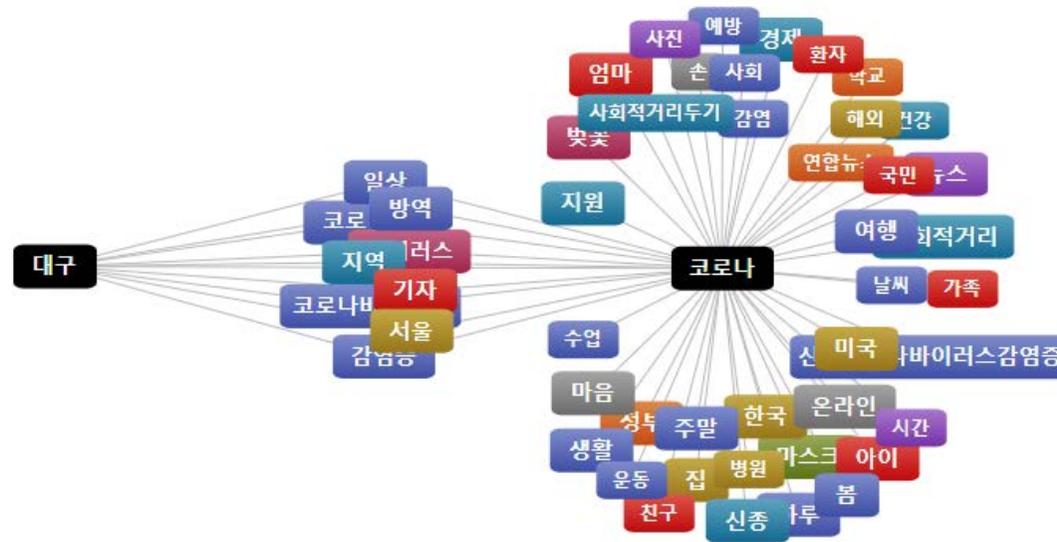
순위	'코로나' 연관어
1	코로나19
2	마스크
3	바이러스
4	집
5	코로나바이러스
6	일상
7	기자
8	하루
9	지역
10	감염증
11	신종
12	뉴스
13	엄마
14	봄
15	마음
16	정부
17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8	아이
19	손
20	방역

* 트위터를 제외한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언급량의 분석결과임

4월의 연관성은 3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구' 관련해 '일상'에 대한 언급이 높아지며 맛집이나 온라인 소통 관련 키워드가 상위로 복귀하였음

- 2020년 4월의 SNS언급 중 '대구'와 '코로나19'의 각각의 연관어를 분석하여 50위까지의 연관어를 산출하고, 서로 겹치는 지점을 연관어 맵으로 나타내었음
- 4월에 대구와 코로나19의 공동 상위 연관어는 10개로 2~3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대구'의 상위권 연관어는 '일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맛집이나 온라인 소통 관련 키워드가 상위로 복귀하였음
- '코로나19'의 상위 연관어의 동향은 비슷하며 '아이' 언급 순위가 상승하였고, 전체 50위 안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언급되는 모습임

순위	'대구' 연관어
1	코로나
2	일상
3	부산
4	서울
5	맛집
6	경북
7	소통
8	지역
9	카페
10	데일리
11	맛팔
12	코로나19
13	동성로
14	예약
15	기자
16	수성구
17	선팔
18	대전
19	팔로우
20	중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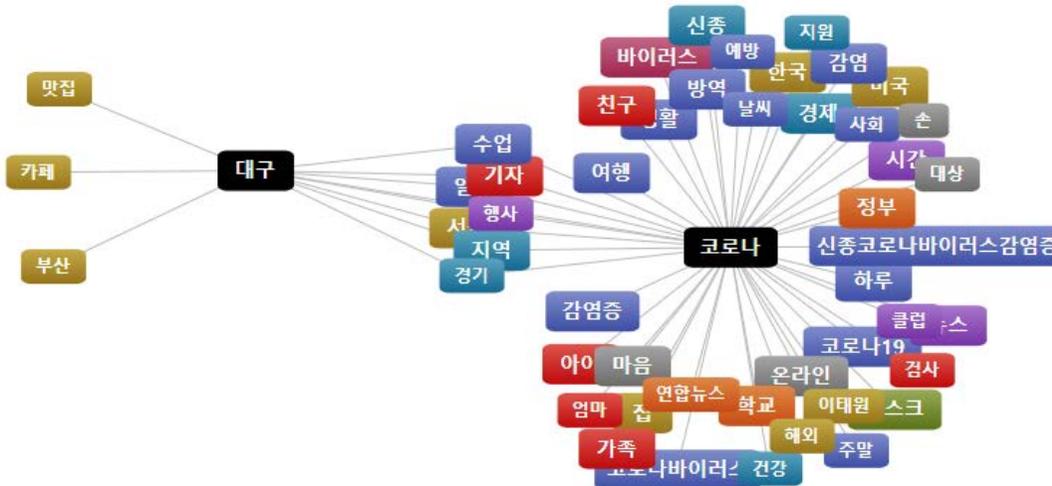
순위	'코로나' 연관어
1	코로나19
2	바이러스
3	집
4	마스크
5	코로나바이러스
6	일상
7	하루
8	감염증
9	기자
10	신종
11	지역
12	정부
13	경제
14	아이
1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16	한국
17	미국
18	봄
19	엄마
20	뉴스

* 트위터를 제외한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언급량의 분석결과임

'대구' 관련 연관어의 순위가 코로나19 이슈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3개월간 1위를 차지하던 '코로나'가 9위로 하락하였음

- 2020년 5월의 SNS언급 중 '대구'와 '코로나19'의 각각의 연관어를 분석하여 50위까지의 연관어를 산출하고, 서로 겹치는 지점을 연관어 맵으로 나타내었음
- 5월에 대구와 코로나19의 공동 상위 연관어는 7개로 감소하였으며, 등교학과 함께 '수업'이 공동 연관어로 등장하였음
- '대구'의 상위권 연관어는 1월과 비슷하게 바뀌었고 3개월간 1위를 차지하던 '코로나'가 9위로 하락하였음
- '코로나19'의 상위 연관어에서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였으며 '여행'이라는 단어 역시 20위로 등장하였음

순위	'대구' 연관어
1	일상
2	맛집
3	부산
4	카페
5	서울
6	소통
7	데일리
8	맛팔
9	코로나
10	동성로
11	예약
12	수성구
13	경북
14	지역
15	종반
16	팔로우
17	선팔
18	카톡
19	대전
20	ootd



순위	'코로나' 연관어
1	코로나19
2	바이러스
3	마스크
4	코로나바이러스
5	집
6	서울
7	일상
8	기자
9	하루
10	감염증
11	지역
12	신증
13	생활
14	방역
15	경제
16	아이
17	신증코로나바이러스
18	정부
19	시간
20	여행

* 트위터를 제외한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 언급량의 분석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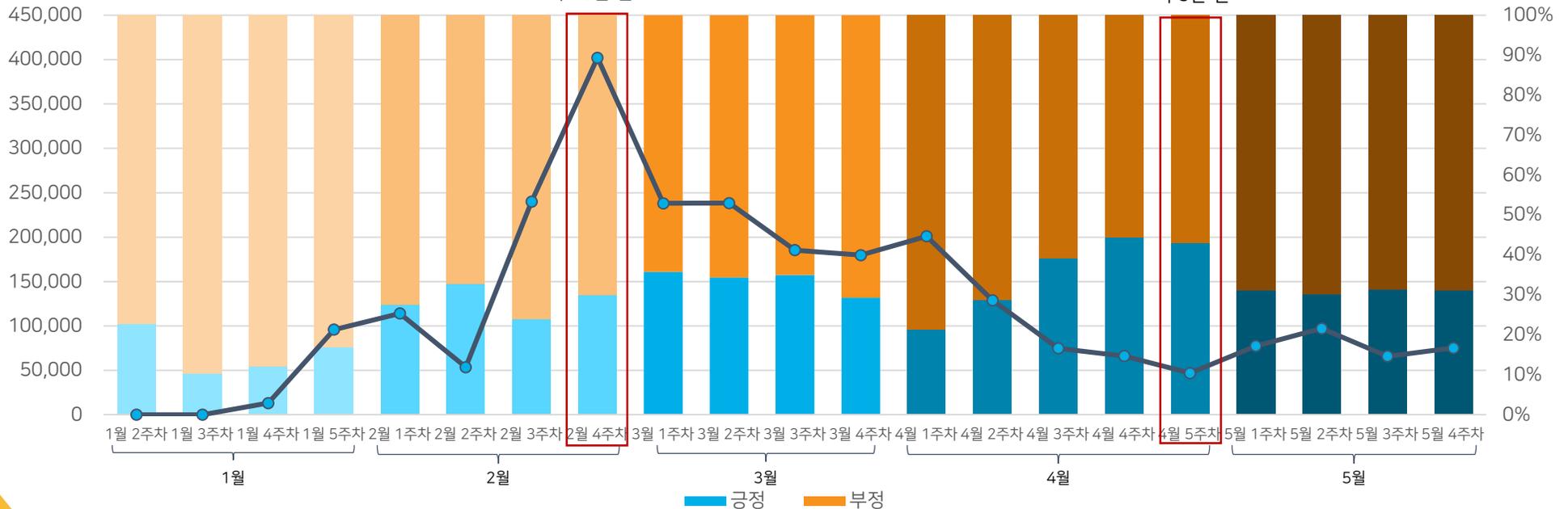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잠시 증가 및 감소했던 '확진자' 언급은 2월 3주차 31번 확진자 확인 이후 폭증하며 2월 4주차에 40만건 이상을 기록

-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확진자'의 주별 언급량 및 긍부정 비중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음
- '확진자'를 언급하는 글은 2020년 1월 1~3주에는 총 46건 정도로 극히 적었으나 4주차에 13,271건, 5주차에는 95,923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1월 초에 '확진자'라는 표현이 쓰인 글을 확인해 보면 코로나19가 아닌 소아마비나 메르스, 사스 등에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바이러스성 폐렴 증상' 정도로 언급되었음. 3주차에는 커뮤니티, 카페, 블로그를 중심으로 언급되다가 첫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에는 하루에 1,217건, 두 번째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5일에는 4,073건으로 급증하였음
- 2월 2주차에는 언급량과 부정적인 언급의 비중이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주차에 31번 확진자 확인 이후 2주간 언급량이 크게 늘어 2월 4주차에는 가장 많은 402,177건을 기록하였음
- 감소하던 언급량은 4월 마지막주에 약 5만건의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5월 초 연휴와 함께 지역감염이 확산되며 언급량이 다시 상승하였음

전체 언급량 및 긍부정 비중 추이

약 40만 건

약 5만 건



연관어 순위를 통해 '확진자'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우한폐렴-신천지-유형업소-이태원' 순서로 언급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월부터 5월까지 '확진자'와 가장 연관성이 높게 분석된 단어들의 순위를 월별로 20위까지 분석하였음
- 월별 연관어들을 통해 이슈의 대상이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한폐렴' - '신천지' - '유형업소' - '이태원' 순서로 확진자 관련 대표적인 언급의 양상이 변화하였음
- 1월에는 '우한폐렴'이라는 키워드로 중국발 바이러스라는 인식이 강해 중국 관련 단어들인 연관어 상위에 나타났으나, 점차 국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며 2월에는 '속보' 형식으로 빠른 소식을 알리고 3월에는 검사 대시 확진자 수 등이 관심을 얻었으며 4월에는 '방역' 관련 이야기가, 5월에는 일상에서의 코로나 대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됨

연관어 순위	1월	2월	3월	4월	5월
1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2	국내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	클럽
3	폐렴	신천지	총	유형업소	이태원
4	우한폐렴	추가	신천지	서울	코로나19
5	이동	속보	한국	방역	고3
6	신종	총	검사	하루	감염
7	바이러스	환자	뉴스	신규	검사
8	남성	뉴스	지역	마스크	학생
9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추가	뉴스	학교
10	속보	지역	사망자	검사	속보
11	감염	검사	마스크	지역	서울
12	사망자	한국	감염	강남	뉴스
13	카드	국내	환자	사망자	등교
14	신종코로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감염	용인
15	출처	중국	바이러스	한국	기사
16	중국	사망자	미국	국내	마스크
17	추가	정부	정부	집	신규
18	중국인	일본	서울	미국	추가
19	신상	감염	병원	주말	한국
20	딸	이동	하루	일본	쿠팡

1월

- 아직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시기로, **중국발 바이러스**라는 내용 중심으로 언급되는 모습을 보임
- 3번 환자의 신용 '카드'내역으로 이동경로를 파악했다는 글과 **확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SNS상에 다수 작성되었음

2월

- 2월 하반기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며 높은 연관어 순위를 기록하였음
- '속보'의 형태로 신규 확진자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공유하며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증가함

3월

- 여전히 신천지에 대한 언급이 높은 가운데 '총' '검사' 수 대비 확진자의 수가 화제가 되며 신속한 검사로 빠르게 확진자를 찾아내는 **정부의 대응**이 많이 언급되었음
-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전파되면서 **추가 확진자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4월

- 유형업소 직원 확진자와 접촉했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것이 알려졌고, 동시에 **유형업소의 영업과 방문객에 대한 비판**도 작성되었음
- **일상생활에서의 방역**과 시민들의 대응이 이슈가 되는 모습이며, 동시에 '집' 연관어가 상위로 등장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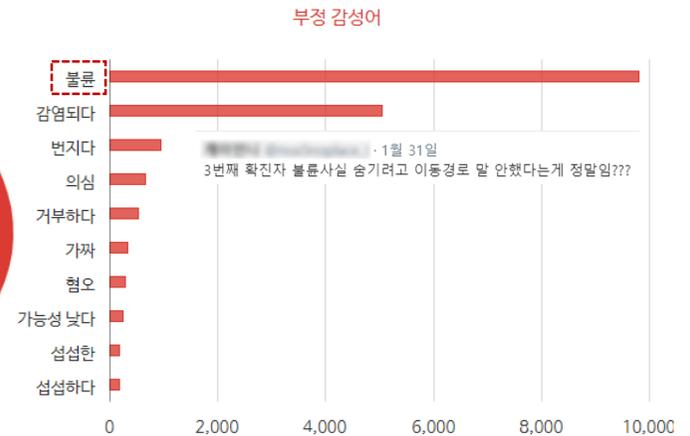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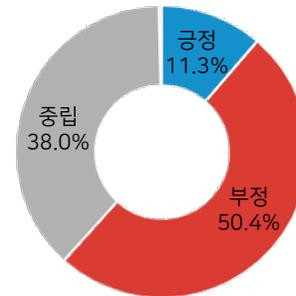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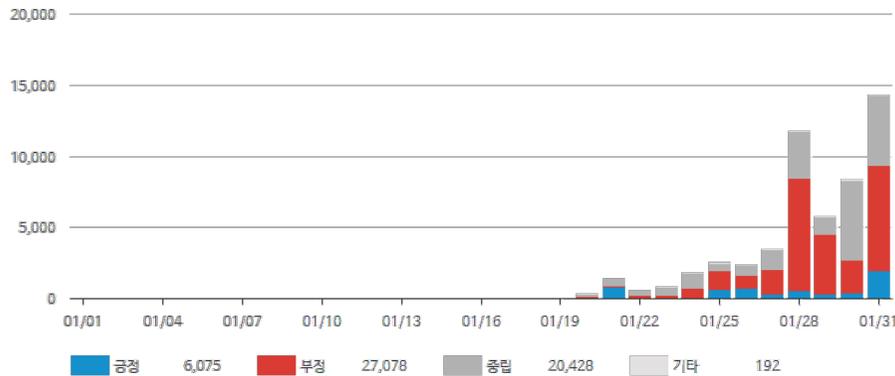
5월

-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소식이 논란이 되었음. 특히 **성소수자 혐오**와 맞물려 '코로나19'보다 더 높은 언급량을 기록하였음
- **등교개학**을 앞두고 지역감염이 이어지자 고3 학생들의 등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1월에 50% 가량의 부정적 언급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및 신상 관련 글이 작성되며 확진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음

- 1월 한달 간 '확진자'와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긍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1월 20일부터 '확진자' 관련 감성어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1월 28일과 1월 31일에 부정적인 언급의 양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
- 전체적으로 부정의 감정을 드러낸 글이 절반이 조금 넘었으며, 중립적인 언급도 38%를 차지하였음
- 부정 감성어를 보면 '불륜'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3번째 확진자에 대한 신상 관련 글이 작성되면서 **이동경로를 숨긴 데 대한 불안**이 더해져 비난의 의미를 담은 글들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작성 및 공유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이 밖에도 확진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감염되었으며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글이 다수 작성되었음
- 긍정 언급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쾌유를 바라거나 주변인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글들이 작성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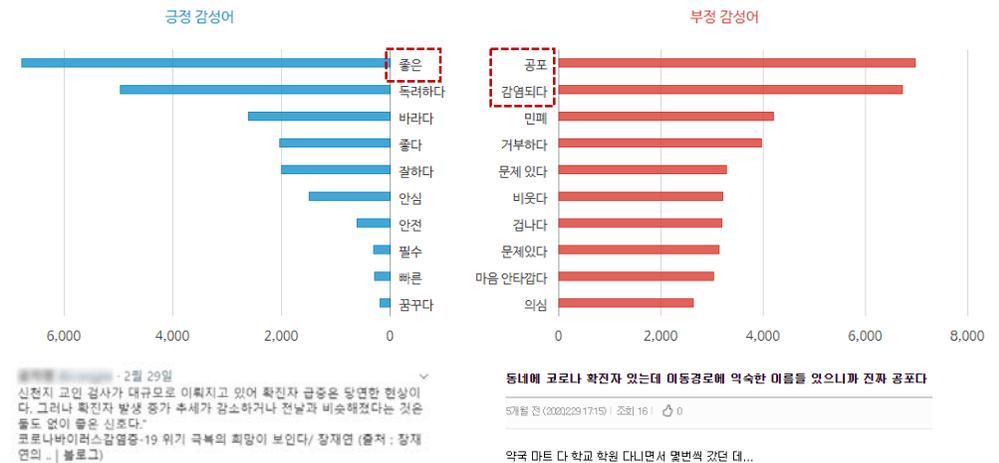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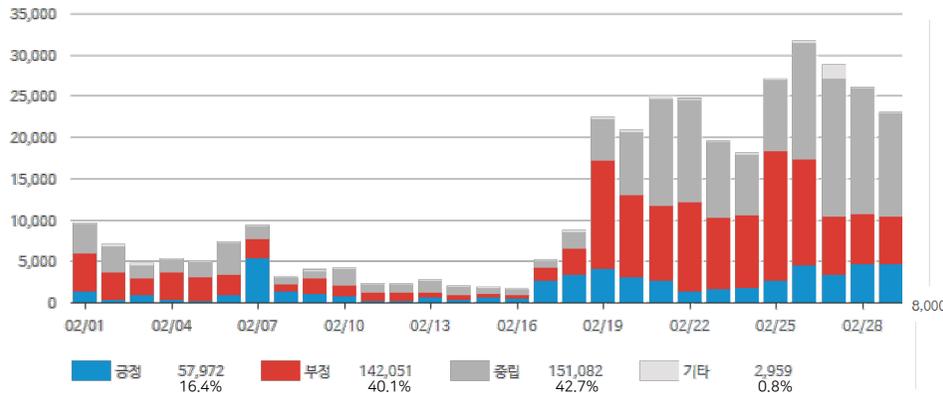
긍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1월 대비 부정적 언급 비중이 감소하고 정보성 글이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나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남

- 2월 한달 간 '확진자'와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긍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2월 16일까지는 감성어의 언급량이 낮았으나 17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확진자 관련 정보 위주로 중심으로 작성한 언급들도 나오면서 부정적 언급의 비중은 40%로 1월 대비 감소하였음
- 긍부정 감성어를 보면 긍정 감성어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특히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가 감소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좋은' 신호라는 글이 많은 관심을 받았음
- 그러나 자신이 일상적으로 방문했던 공간이 확진자의 동선 상에 있는 곳이라는 데에서 오는 '공포'와 '감염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며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이 크게 증가한 모습으로 나타남. 또한 확진자의 이동이 '민폐'라며 비난하는 글이나 검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에 대한 비난도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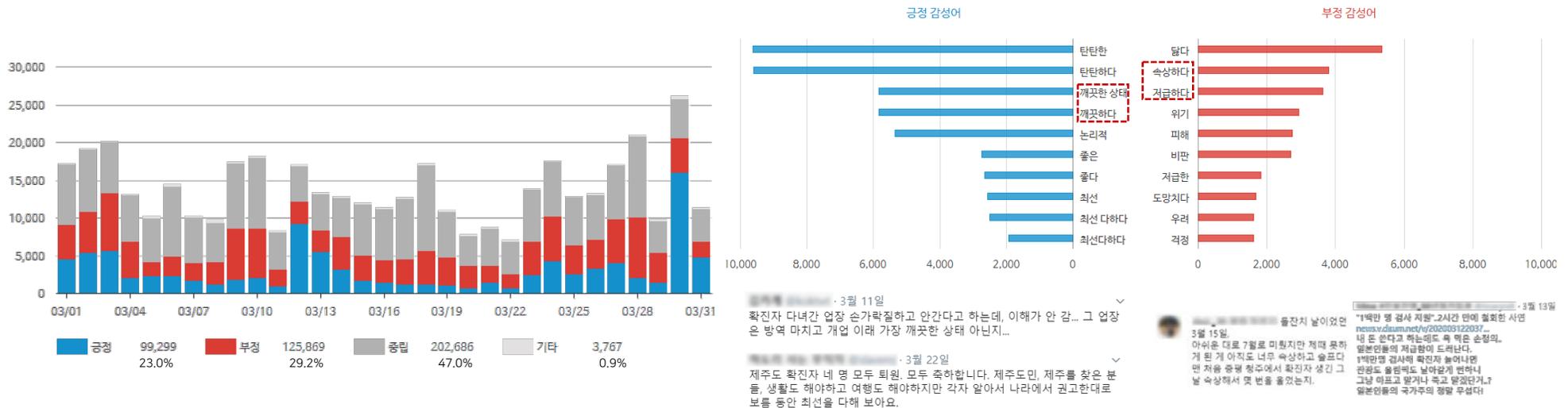
긍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3월에는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와 의료진에 대한 언급으로 긍정 감성어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부정적 언급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음

- 3월 한달 간 '확진자'와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긍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3월은 2월에 비해 **긍정 감성어의 큰 증가**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남. 특히 전체 감성어 중 23%를 긍정 언급이 차지하였고 부정 언급이 29.2%로 감소하였는데, 긍정 감성어 상위 키워드들의 언급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부정 감성어보다 우세하게 나타남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탄탄한 정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글이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이외에도 확진자가 다녀간 업장은 방역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한 상태이니 방문을 꺼리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글이 작성되며 공감을 얻음. 또한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일선의 의료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SNS상에 공유되며 긍정적인 언급을 이끌어내었음
- 부정어의 경우 '지문이 닳도록 손을 씻어야 한다'라며 **위생관념**이 부족한 것을 비판하거나 확진자 관련 소식을 접하거나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속상하다'는 글들이 작성되었음. 또한 '저급하다'의 경우 **일부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들이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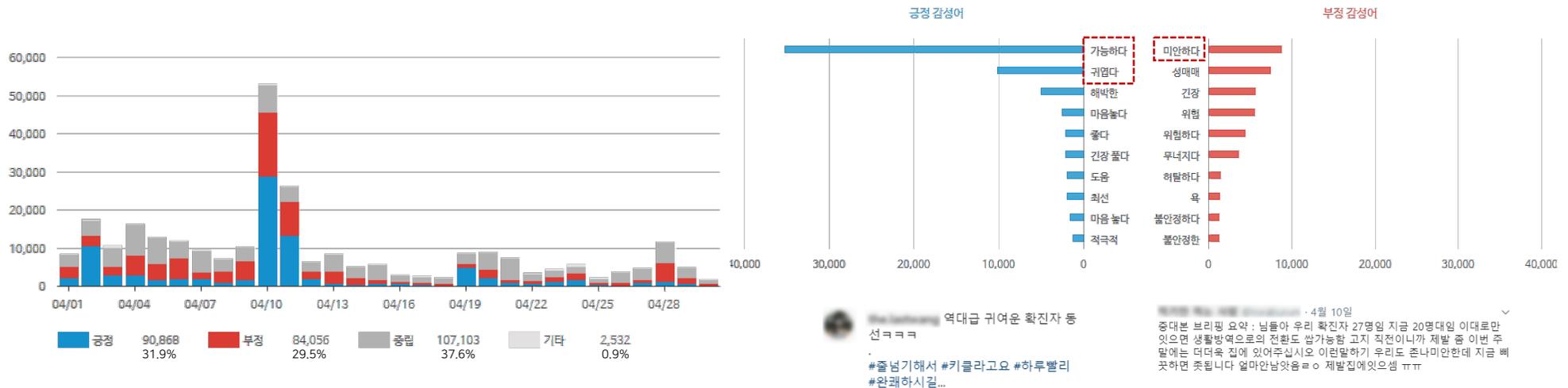
긍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2월 이후 신규 확진자가 최저로 나타나며 긍부정 감성어가 감소하였으며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논의가 긍정 언급을 이끌어냄

- 4월 한달 간 '확진자'와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긍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4월은 3월에 비해 대체적으로 감성어의 언급량이 낮은 편이었으나 4월 10~11일을 중심으로 언급이 증가하였음. 4월 10일의 경우 긍정적인 뉴스로 2월 20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최저라는 소식과 문재인 대통령 - 빌 게이츠 간 통화 소식이 화제가 되었으며, 동시에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 중 일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우려의 목소리도 작성되었음
- 긍정 감성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가능하다'로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작성되었고 코로나19가 현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글도 작성되었음. '귀엽다'는 한 10대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었는데 '앞마당에서 즐넌기'만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등장한 감성어였음
- 부정어의 경우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미안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한 트위터 글이 중대본 브리핑을 요약한 것이 화제가 되어 '미안하다'라는 감성어가 1위로 나타남. 그 밖에는 유흥업소 확진자 소식과 관련해 '성매매'라는 단어도 등장하였으며, 확진자 증가 추세가 줄었어도 긴장해야 한다는 것, 등교개학은 아직 위험하다는 의견 등이 작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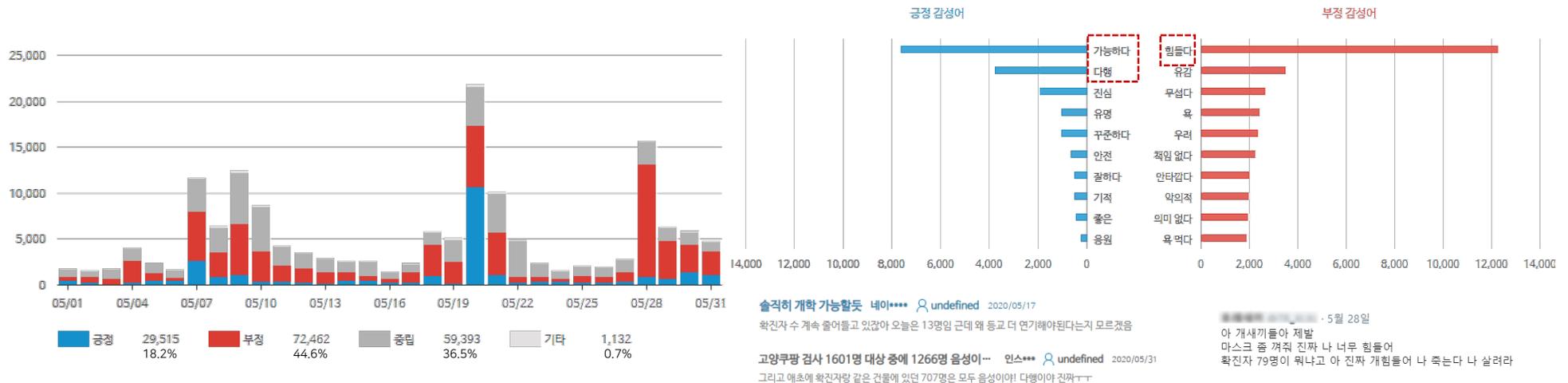
긍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부정적인 언급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우려와 분노,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친 마음 등이 언급되었음

- 5월 한달 간 '확진자'와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긍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그 동안 감소 추세에 있었던 확진자 관련 부정 언급의 비중이 5월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2월의 부정 언급 비중인 40%대를 넘는 44.6%로 나타남
- 부정적인 언급은 5월 7일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는 **용인 확진자가** 연휴 동안 이태원 클럽과 리조트, 남이섬 등을 돌아다녔다는 것이 알려지며 동선과 많은 접촉자에 대한 **우려와 걱정, 분노** 등이 함께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임. 5월 20일에는 고3 등교개학과 관련하여 긍부정 언급이 혼재된 모습으로 나타남
- 긍정 언급 중 '가능하다'는 등교개학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쿠팡 관련해서 쿠팡맨들의 배송이 '가능한다'를 논의하는 글들이 작성되었음. '다행'의 경우는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취지의 글들이 많았음
- 부정 감성어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힘들다'로,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 때문에 일과 생활이 힘들다는 내용들이 다수 작성되었음. 4월에 확산세가 줄어들다가 5월 들어서 다시 지역감염이 확산되다 보니 안심했던 이들이 지치고 힘든 마음을 표현하는 글들이 많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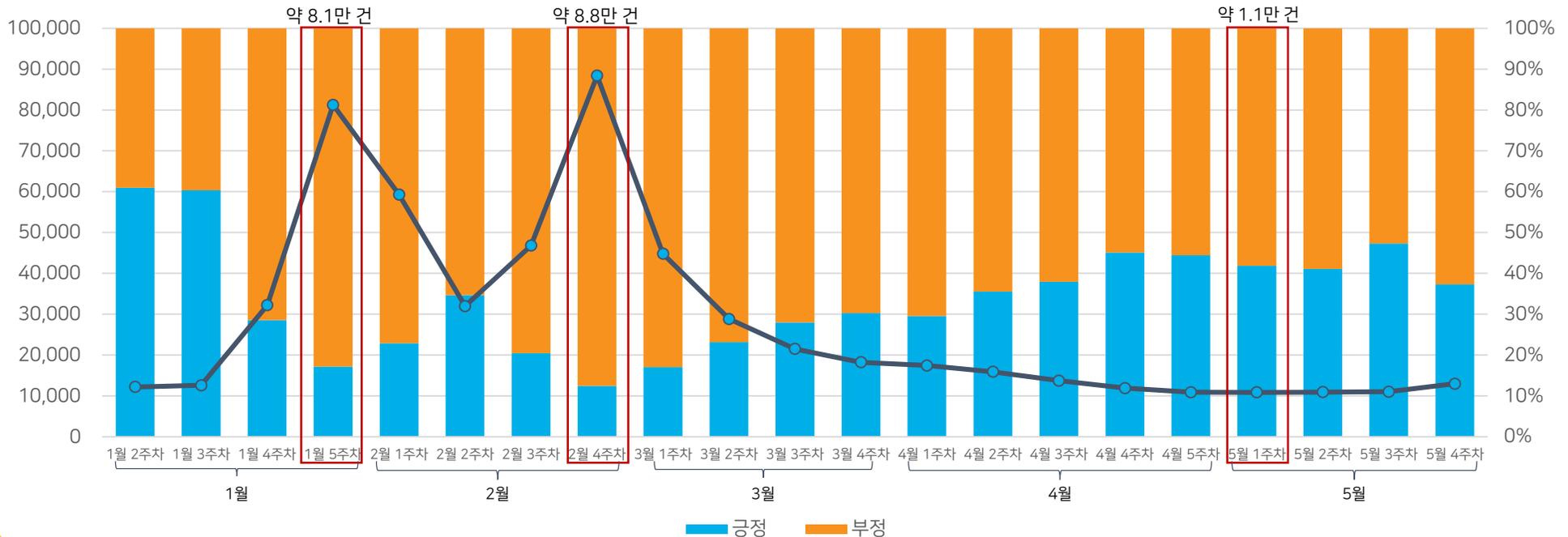
긍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중국인' 관련 언급은 1월 5주와 2월 4주차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언급량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언급의 비중 역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냄

-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의 주별 언급량 및 긍부정 비중의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음
- '중국인'을 언급하는 글은 1주일 평균 28,000여 건이 작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1월 5주차와 2월 2주차에 언급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약 8~9만 건 수준의 언급을 보임
- 언급량이 가장 적었던 것은 5월 1주차로 약 11,000건 정도의 관련 글이 작성되었는데, 4월 5주~5월 2주에 계속 낮은 언급을 보이다가 그 이후로 다시 소폭 상승하였음
- 1~5월의 부정적인 언급 비중은 평균적으로 66% 가량으로 나타나는데, 1월 초에 30%대를 유지하다가 1월 4주차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5월에는 58% 가량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중국인' 키워드의 언급량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언급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임. 1월 5주차의 경우 82.8%가 부정적 언급이었으며 2월 4주차에는 87.5%로 더욱 상승하였음.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조사기간 내 '중국인' 관련 언급량의 증감은 부정적인 언급의 증감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전체 언급량 및 긍부정 비중 추이



1~3월에 중국인 입국금지과 관련된 찬반논쟁이 꾸준히 작성되었으며, 4~5월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관련 경험과 우려가 언급되었음

-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인'과 가장 연관성이 높게 분석된 단어들의 순위를 월별로 20위까지 분석하였음
- 1~3월에는 중국인 입국금지과 관련된 높은 관심이 나타났으며 찬/반뿐 아니라 입국금지가 효과가 있는지, 외국에서 동양인 차별이 일어나며 한국인들도 입국금지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 등이 전개되었음
- 4~5월은 코로나 등 입국금지 이슈는 상대적으로 잦아들었으며 국내 및 미국 등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과 연관된 경험과 우려 등이 주로 작성되는 모습이 나타남

연관어 순위	1월	2월	3월	4월	5월
1	중국	입국	입국	중국	중국
2	입국	중국	중국	한국	한국인
3	한국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일본
4	바이러스	입국금지	입국금지	정부	미국
5	코로나	한국	한국인	입국	한국
6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정부	국민	게임
7	한국인	한국인	한국	한국인	성격
8	우한	정부	마스크	사건	쪽지
9	우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미국	아이	코로나
10	입국금지	신천지	바이러스	국적	중국어
11	페렴	감염	신천지	인종차별	한국어
12	환자	국민	유럽	딸	일본인
13	남성	환자	코로나19	코	친구
14	마스크	우한	문재인	유학생	입국
15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스크	지역	외국인	선거
16	여성	일본	국민	나경원	외국인
17	기사	뉴스	이탈리아	선거	정부
18	정부	문재인	코	미국	트윗
19	감염	코로나19	유학생	입국금지	학교
20	연휴	지역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목소리

1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며, 특히 춘절 연휴를 맞아 확산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글들이 많이 작성됨
- 동시에 한국에서 중국인 입국금지를 논하는 동안 프랑스 등의 외국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 차별이 행해지고 있다며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타남

2월

- 여전히 중국인 입국금지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신천지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을 언급하면서 신천지 내에 중국인이 있었는지, 또 중국인 입국금지보다는 한국 내부에서 관리와 추적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작성하기도 하였음
- 한중일 3개국의 정치적 관계 등을 비교하며 일본의 상황을 언급하는 글들도 등장함

3월

-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한 의견은 왜 내지 않느냐며 중국인 차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는 비중이 늘어났으며 해당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동양인 혐오가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건들이 다수 공유됨
- 국내의 중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 및 이탈리아 교민 입국 소식 등도 화제가 됨

4월

- '입국금지' 연관어의 순위가 하락하였으며 '인종차별' 연관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음. 해외에서 벌어지는 동양인 차별과 한국인들의 중국인 차별을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는 글들이 이슈가 되었음
- 나경원 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중국인으로 표현하며 논란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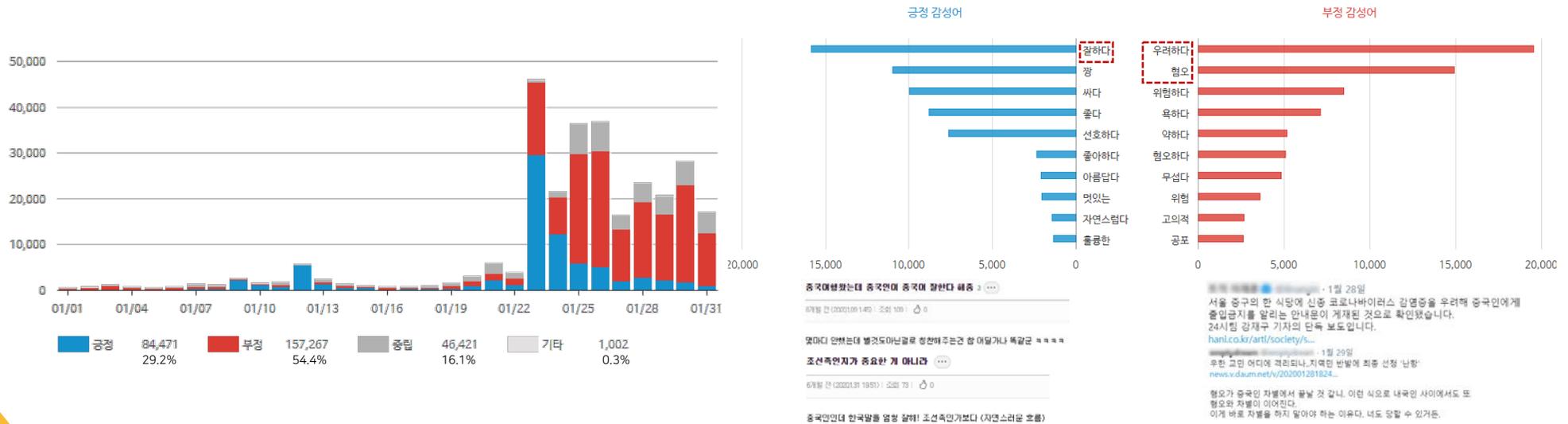
5월

- 온라인에서 중국인과 게임을 하며 쪽지를 주고받은 것이나 한중일 3개국 사람들의 성격 비교 등, 코로나와 비교적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단어들이 상위에 위치하였음
-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조지 플로이드 관련 시위 소식과 중국인을 연관시키기도 하였으며,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에 대한 미국의 반응 등이 언급되었음

코로나19 이슈 이전에는 긍정적인 감성어들이 다수 작성되었으나, 국내 확진자 확인 이후에는 '우려하다' '혐오' 등의 부정적 감성어가 늘어남

- 1월 한달 간 '중국인'과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긍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1월 22일 이전까지는 중국인과 관련된 긍/부정의 감성어 언급이 낮은 수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월 23일부터 국내 확진자 관련 소식과 함께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함
- 1월 22일 이전에 작성된 중국인 관련 글에서는 '잘하다', '짱', '싸다', '좋다' 등의 긍정적인 감성어들이 다수 작성되기도 하였으나,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는 부정적인 언급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우려하다'라는 부정 감성어가 2만여 건 가까이 작성되며 코로나19의 확산을 걱정하였으며, 동시에 '혐오'라는 감성어가 2위로 등장하며 혐오는 단순히 중국인 차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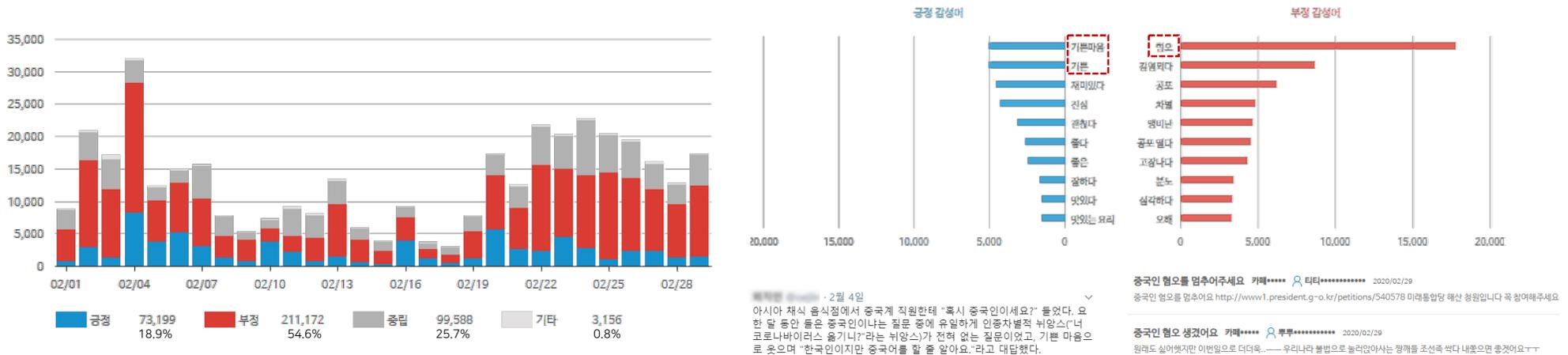
긍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긍정적 단어 언급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부정 언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는 글들도 작성됨

- 2월 한달 간 '중국인'과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긍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긍정적인 언급의 비중이 29.2%에서 18.9%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부정적인 언급의 비중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대신 중립적인 언급의 비중이 16.1%에서 25.7%로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남
- 2월 4일에는 제주를 여행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추가 동선이 확인되며 중국인 차별적 발언들이 다수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 2월 중순에는 감성어 언급량 자체는 낮아졌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언급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2월 20일부터 하반기에는 부정 언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작성되었음
- 긍정 감성어 상위의 '기쁜마음'과 '기쁜'은 트위터에서 다수 공유된 글의 영향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한 한국인이 최근에 들어본 질문 중 유일하게 인종차별 뉘앙스가 없는 말이라서 기쁜 마음이 었다는 글이 작성되었기 때문임
- 부정 감성어로는 1월에 1위였던 '우려하다'의 순위는 하락하고 '혐오'가 1위로 언급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혐오를 멈춰야한다는 글도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인을 더욱 혐오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혐오를 정당화**하는 글도 작성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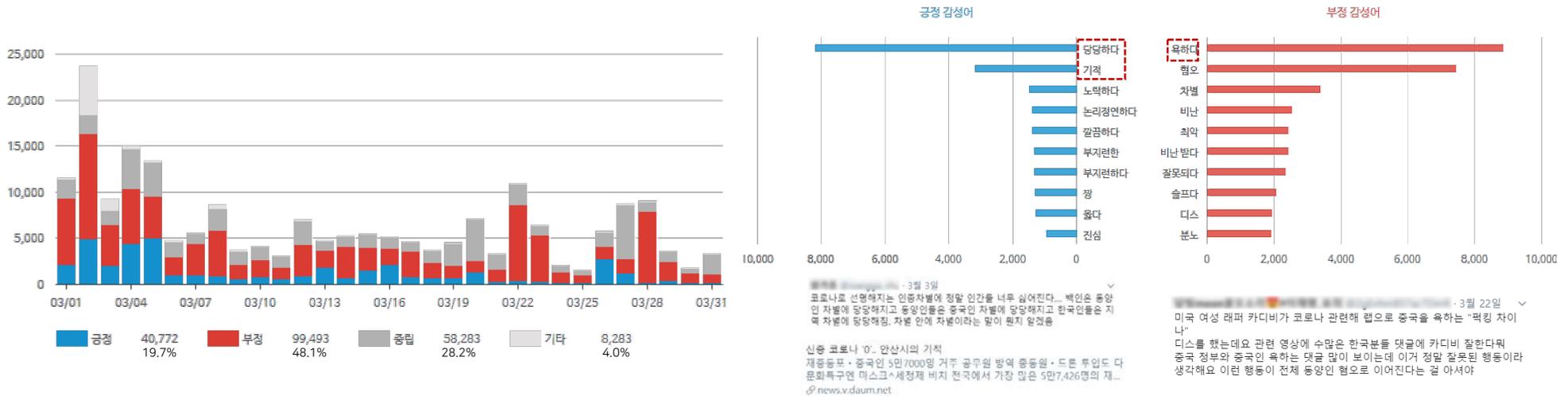
긍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중국인' 관련 혐오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정적 언급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인종차별을 당당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글이 공감을 얻음

- 3월 한달 간 '중국인'과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긍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긍부정 비중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으나 **부정이 줄어들고 긍정과 중립적 언급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 3월 2일에 가장 많은 감성어 언급이 있었는데, **'차이나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중국인이 국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졌으며 반면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이나 경북 등의 지역에는 확진자가 없으며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남
- 3월 중순 이후로는 감성어의 언급량이 2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2일과 28일에 일시적으로 부정적 언급이 크게 상승하였음
- 긍정 감성어로 '당당하다'가 등장하는데, 인종차별을 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높은 공감을 얻었기 때문이며 '기적'은 재중동포와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한 뉴스 기사가 화제가 되었기 때문임
- 부정 감성어 1위로 '욕하다'가 꼽혔는데 이는 미국의 한 래퍼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을 욕하는 랩을 한 것이 화제가 되며 등장한 연관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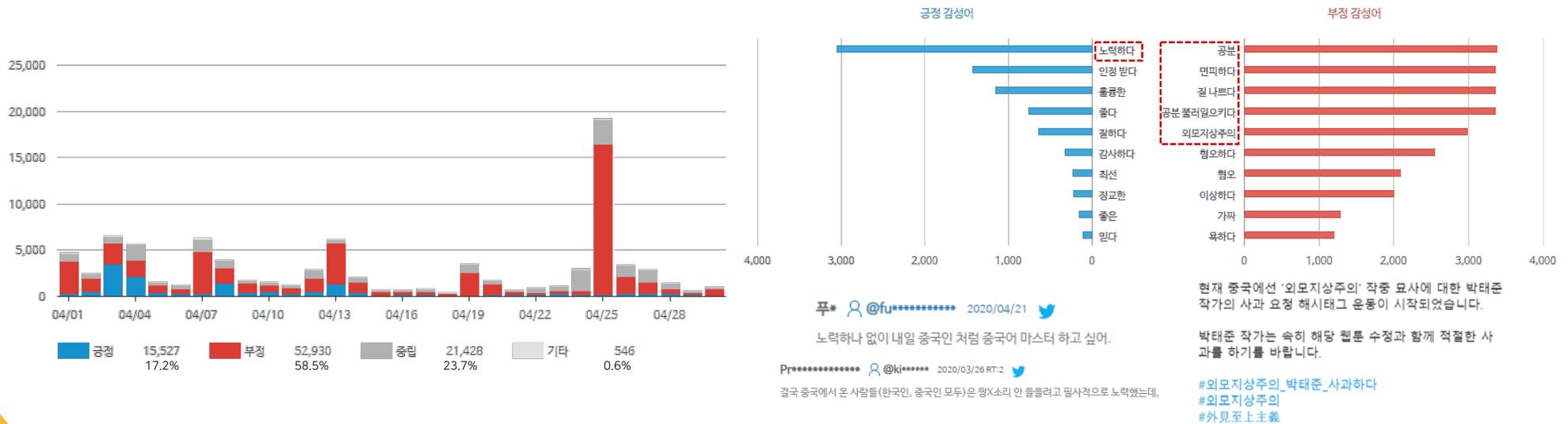
긍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공부정 감성어가 작성된 양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한 웹툰의 중국인 혐오적 표현으로 오히려 부정적 언급 비중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4월 한달 간 '중국인'과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공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3월에 비해 4월의 공부정 등 감성어가 작성된 양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부정적으로 언급된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여 48.1%에서 58.5%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임
- 전반적으로 일별 5,000건에 훨씬 못 미치는 감성어가 작성되었으나 4월 25일에 16,282건의 부정적인 글이 작성되며 부정어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이 날은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중국인 혐오적 표현이 이슈가 되었는데 성 착취 영상의 소비자를 중국인으로 묘사한 것이 중국에 퍼지며 공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임. 국내에서도 N번방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닌 중국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바꾸어 면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짐
- '노력하다'라는 긍정 감성어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언급이었으며 그 외에도 중국어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하다'와 같은 맥락으로 쓰인 글들도 확인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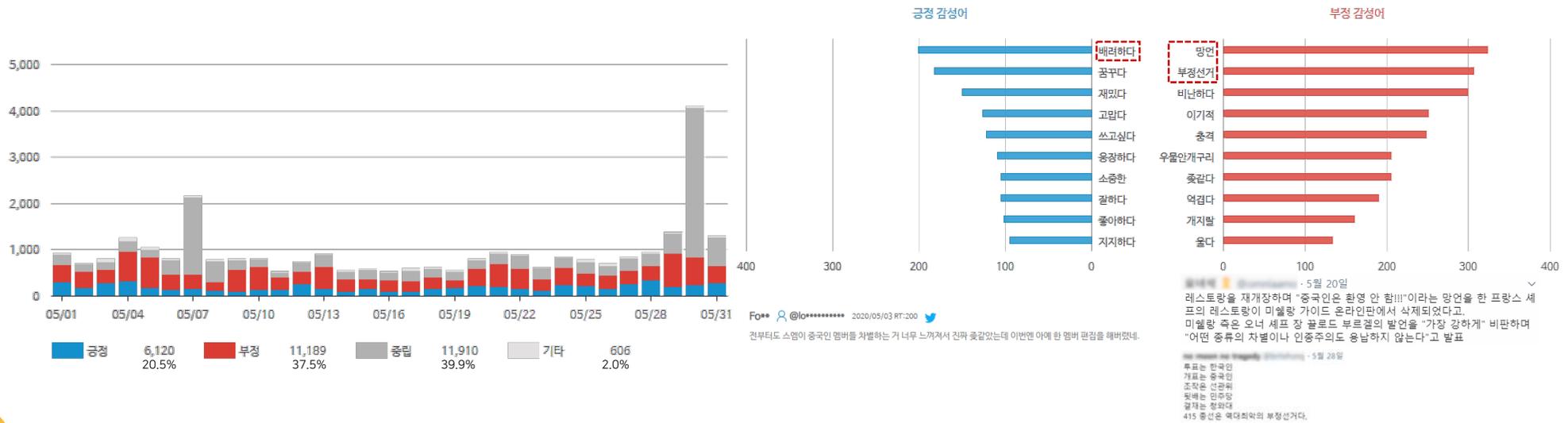
공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5월은 조사대상 기간 중 부정적 언급의 비중이 가장 낮은 시기로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보임

- 5월 한달 간 '중국인'과 관련해 긍정 혹은 부정의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한 글들을 분석하여 긍부정 감성 추이와 감성어 키워드를 분석하였음
- 5월은 조사기간(1~5월) 중 부정적 언급의 비중이 가장 낮은 시기로, 부정과 중립이 38% 내외로 비슷한 언급량을 나타내었으며, 긍정적인 언급의 비중도 1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인 20.5%로 분석됨
- 긍정적인 감성어의 경우 중국인 연예인의 팬들이 SNS상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과 관련된 글을 게시하며 나타나는 감성어들이 많았음
- 부정 감성어의 경우 중국인을 차별한 프랑스 셰프의 레스토랑이 미셸랑 가이드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망언'이 1위로 나타났으며 4.15 총선이 중국인이 개표에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내용을 작성한 계정들이 등장하며 '부정선거'라는 단어 또한 다수 언급되었음

긍부정 감성 추이 및 부정 감성어 키워드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특징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4. 향후 과제

1) 코로나19 언급 분석

- 코로나19 관련 SNS 언급은 1월 마지막주에 본격적으로 상승하여 2월 4주차에 가장 높게 나타난 이후 꾸준히 하락하였음
- 설 연휴 이후 네 번째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폭증하며 하루 평균 약 40만건의 글이 작성되었음
- 2월은 가장 많은 SNS 언급량을 기록하였으며 31번째 확진자 확인을 기점으로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며 부정적 언급 비중도 증가하였음
- 3월은 평일 기준 하루 60만건 내외의 언급을 유지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높게 유지되었으며, 부정적인 언급이 약 40%를 차지하였음
- 4월은 전월 대비 언급량이 다소 감소 추세로 접어들며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관련해 안도와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서 나타남
- 5월 초 연휴 이후 이태원 지역감염 확산으로 언급량 감소세가 주춤하며 부정적인 글의 비중 역시 소폭 상승하였음

2) 코로나19와 혐오표현의 전파

- 다양한 카테고리 중 장애인 혐오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인종차별 및 성소수자, 지역혐오, 신천지혐오는 언급량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임
- 장애인혐오와 여성혐오는 각각 장애인이나 여성만을 향해 발화되지 않으며 일상화된 욕설로 표현되어 코로나19와는 연관성이 낮았으나 인종차별이나 성소수자, 지역혐오 등의 일부 혐오발언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증가 및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남
- 인종차별 : 1월 하순과 2월 하순에 인종차별 발언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코로나19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종차별은 긍정 언급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부정적인 언급이 큰 변동을 보이며, 정부 및 인권위의 연대 강조 이후 부정 언급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월에 다시 증가하였음
- 성소수자 혐오 : 성소수자 관련 부정적 언급 비중은 70%가 넘는 높은 수준이며 특히 5월 초에는 90%에 가까운 부정적 언급이 작성되어 매우 큰 혐오가 드러남. 5월 초 '게이클럽' 보도로 부정 언급이 증가하였으나 언론 등의 혐오 조장 보도 비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거치며 부정 언급이 감소하였음
- 지역혐오 : 지역혐오 언급은 2월 하반기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대구' 관련 언급의 비중이 많은 동시에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초기에는 우한 교민의 국내 수용 및 대구 중심의 감염 확산으로 부정적 언급이 나타나며, 정부와 언론, 일반의 노력을 통해 부정적 언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신천지혐오 : 온라인 상에서 신천지 관련 언급은 부정적 비중이 8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2월 3주차에 기존 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관련 이외에도 '이단', '사이비' 등의 표현이 크게 나타남

3) '대구' 선별 분석

- 대구의 전체 언급량 및 부정적 언급 비중은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2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4월 말 경에 코로나19 이슈 반영 전 수준으로 복귀하였음
- 2월 중순 이후 전체 언급량과 부정적 언급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월 하순의 #힘내요DAEGU 캠페인과 성금 및 방역물품 기부 등의 행동이 이어진 이후 전체 언급량 및 부정적 언급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였음
- 연관 단어 추이를 보면 2월에 '최선 다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3월에는 언급이 증가한 반면 '불안' 단어의 순위는 3월과 4월에 걸쳐 언급이 감소하였음
- 코로나19 이전 일상과 맛집 위주로 언급되던 대구의 이미지는 2~3월에 코로나 관련 단어들이 함께 언급되었으며, 4월부터는 일상 관련 연관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다가 5월에는 연관어 '코로나'가 9위 수준으로 떨어지며 일상의 모습을 회복하는 형태로 나타남

4) '확진자' 선별 분석

-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감소했던 '확진자' 언급은 31번 확진자 확인 이후 폭증하며 2월 4주차에 40만건 이상을 기록하였음
- 연관어 순위를 통해 확진자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우한폐렴-신천지-유형업소-이태원' 순서로 사람들의 확진자 관련 관심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임
- 1월에는 확진자의 이동경로 및 신상 관련 글이 작성되며 확진자를 비난하는 여론에서 2월에는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이 크게 높아지며 분위기가 전환되었음
- 3월에는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와 의료진에 대한 언급으로 긍정 감성어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생활 방역 전환 논의가 이어지며 긍정적 언급을 주도하였음
- 그러나 5월에는 부정적 언급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며 확진자의 동선에 대한 우려와 분노,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친 마음 등이 언급됨

5) '중국인' 선별 분석

- 중국인 관련 언급은 1월 5주와 2월 4주차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언급량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언급의 비중 역시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냄
- 1~3월에 중국인 입국금지와 관련된 찬반논쟁이 꾸준히 작성되었으며, 4~5월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관련 경험과 우려가 언급되었음
- 코로나19 이슈 이전에는 긍정적인 감성어들이 다수 작성되었으나, 2~3월에는 '혐오'를 중심으로 부정적 언급이 폭증하였으며 4~5월은 코로나 연관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일상화된 혐오표현 - 장애인혐오, 여성혐오

1. 특정 집단의 차별적 속성에 빚댄 언어표현의 일상화

- 1) 다양한 혐오발언의 카테고리 중에서도 장애인혐오와 여성혐오는 코로나19의 언급 양상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2) 두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두 집단 자체가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한 욕설 등에 사용되며 일상의 언어로 자리잡은 모습을 보임

2. 일상화된 혐오 표현이 차별적 효과를 더욱 강화

- 1) 미숙하거나 잘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장애인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긍정적인 표현(ex. 기분이 좋은 상태를 '기모찌'로 표현)까지도 혐오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혐오 표현이 매우 넓은 범위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음
- 2) 혐오 표현은 신체적 약점을 가진 사람(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비하 및 여성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편견과 배제를 강화하는 영향을 미침

장애인 혐오발언의 일상화 사례

현실에서도 꼭 병신들이 뭐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불쌍 불쌍만 늘어놓자나 옴치도 똑같은 장애인도 할수있도록 힐러 포지션 만들어줬더니 장애인들이 몰려와서 미래라 저래라 불평불만 쏟아놓고 그 새끼를 말대로 해주니 게임 쫄망ㅋㅋㅋ 현실에선 병신들이 개소리하면 쳐맞고 깨이면서 알아서 걸러지는데 불자는 개소리를 거르지 못하고 쫄망길에 들어섬

게임을 잘 못하는 이를 '병신'으로 지칭하며 실제로 '장애인들도 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으로 장애인은 열등하다는 차별적 시선을 드러냄

*** 방금 올렸대요, 하지만 사진은... 너무 맛있어보여요 제가 사진고지라...

잘 하지 못한다는 표현에 '고자'를 붙여 신체적 결함을 가진 이를 지칭하는 표현을 일상어로 사용

미친새끼인가 뒷담한적 없는데 뒷담한다고 지랄하네

타인을 비난하면서 다양한 장애인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

병신임? ㅋㅋㅋㅋ 존나어이없네시발

나이에 맞지 않는 노래들은 이어폰에서 들려오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병어리 등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하는 등산을 '병어리 등산'으로 표현, 언어장애인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

여성 혐오발언의 일상화 사례

《혐오주의》
벤츠 안양점에서 신차 출고 하다가 초보운전 김여사로 인해서 벤츠 달려 다리 절단 수술중이라네요ㅠ

운전 미숙자를 '김여사'로 지칭한 사례로 당시 온라인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며 여성 운전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크게 증가하였음

저 씨발런이 무슨 심리적인문제임 그냥 씨발 제구가 좆도안되서 꺾질하는건데

스포츠 경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는 남성선수를 '씨발런', '창녀' 등으로 표현

개러데이 버리고 시문스델교오면 기모찌할듯
o o (106.102) | 2020.02.26 22:50:35

자신이 좋아하는 농구선수를 스카웃하면 기분이 좋겠다는 의미로 '기모찌할듯'이라는 여성혐오적 표현을 일상어로 사용

지금은 경그룹 코디가 쫄 험은지마안함에도 멧글힐러님 ㅋㅋ
o o (121.147) | 2020.05.07 18:34:31

'영망이 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씹창'이라는 혐오적 표현을 사용

재난과 함께 증가한 혐오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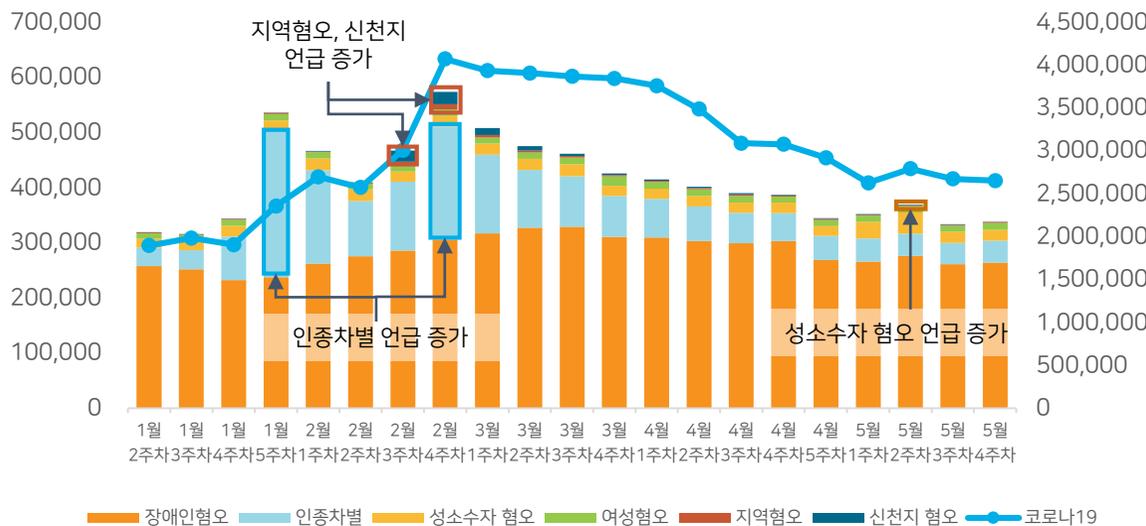
1. SNS상에서 코로나19의 증감과 혐오·차별적 발언 사이의 연관성 확인

- 1) 조사 대상 기간인 1~5월 동안, 코로나19 관련 언급량이 증가/감소할수록 일부 혐오발언 카테고리의 언급량 또한 증가/감소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 2) 장애인혐오나 여성혐오는 큰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인종차별, 성소수자 혐오, 지역혐오 및 신천지혐오는 코로나19의 언급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 재난 상황에 대한 공포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을 정당화

- 1)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김으로써 비난할 대상을 만들고 시기에 따라 옮기는 모습이 확인되었음
- 2)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발현되었음

코로나19와 혐오발언 언급량 비교



<p>쫓겨나는 쫓겨새끼들</p> <p>전세계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더러운 새끼들</p> <p>오늘 조선족 아재새끼 손님으로 왔는데 ㄹㅇ 존나 시끄러워서 열 받더라</p> <p>옆에 가족손님들도 더 먹을건데 시끄러워서 나간것 같고하.. 씨발들</p>	<p>코로나19의 책임을 중국인으로 돌리는 동시에 '더럽고 시끄러운'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강화하는 글</p>
<p>짱깨들이 마스크 다 털어가서 미세먼지 심각 단계인데도 한국인들이 쓸 마스크가 없네요 저희 동네 편의점에도 마스크 전부 품절 ㄷㄷㄷ</p>	<p>중국인들의 마스크 사재기로 국내에서 쓸 마스크가 없다며 비난하는 글</p>
<p>아~ 진짜 죽발같은 신천지 조선족게이트 차이나게이트는 재발ㅋㅋ 신천지게이트가 말지ㅋㅋㅋ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음ㅋㅋㅋㅋ 정리해줄게요~</p> <p>원산지: 중국 수입: 신천지 유통: 신천지 ? ?</p>	<p>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은 신천지 때문이라며 '신천지 게이트'라는 표현으로 비난하는 글</p>
<p>예호, 코로나때문에 동성애 공부하네요. 진짜 알면 알수록 동성애는.. 병이에요, 치료가 담입니다 저는 평소 동성애자 존중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뱀태같아요</p>	<p>코로나19를 기점으로 동성애가 질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글</p>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부정적인 발언을 억제하는 형태로 효과가 나타나며, 이를 위해서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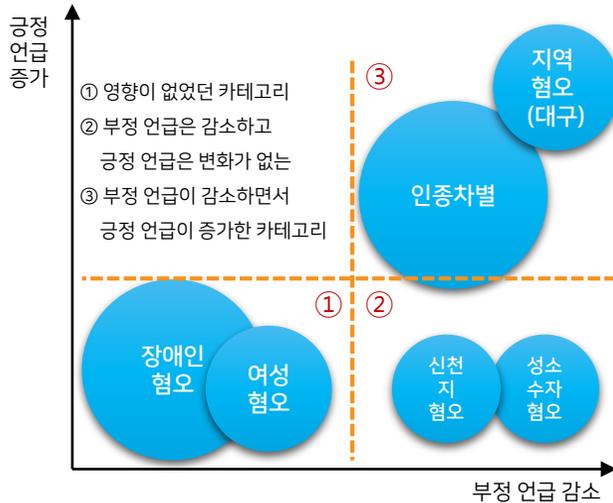
1. 혐오발언의 증감

- 1) 코로나19와 연관된 다양한 혐오발언에 대하여 정부와 언론의 노력,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의견 게시 등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짐
- 2) 높은 양을 기록했던 혐오발언은 다양한 노력에 따라 1~2주 후에는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며, 긍정적 발언이 증가하기보다는 혐오 발언의 작성을 억제하는 형태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2. 모든 대응책이 효과가 있지는 않으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프레임의 전환이 필요

- 1) 혐오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혐오발언을 높이는 방아쇠가 될 수 있음
- 2) 대항표현과 정부 및 언론의 입장 표명, 캠페인 등은 모든 혐오표현에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언급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냄
- 3) '대구'의 사례를 보았을 때,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팩트 제시를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해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대항표현, 캠페인 등 시행 이후
긍부정 언급량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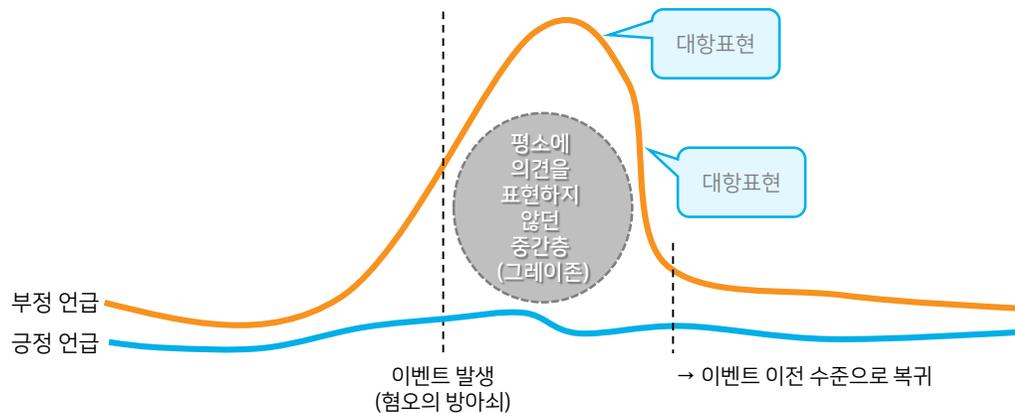
카테고리 별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대응 행위

인종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장 등의 혐오차별 중지 및 인류애와 연대 강조 • 코로나19 보도 준칙 배포(혐오차별 조장 자제 등) 	성소수자 혐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단체 및 방역당국, 성소수자 차별 없이 코로나 검사 받도록 지원 • 언론 내부에서 혐오 조장 언론에 대한 비판, 인권위 성명 등
지역 (대구) 혐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내라 대구 경북 캠페인 • 마스크 양보 운동 • 덕분에 캠페인 	신천지 혐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보도 준칙 배포(혐오차별 조장 자제 등)

'혐오의 방아쇠' 파악과 함께 그레이존의 언급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

1. 혐오는 늘 존재하며, 특정 '방아쇠'에 반응한다

- 1) 혐오 및 차별 발언의 긍부정 비율은 대부분 일정하게 유지되며, 특정 이슈에 대해 혐오를 내재하고 있는 이들이 항상 존재함
- 2) 부정적인 발언이 증가하는 시기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혐오와 차별을 '표현'하는 것이며, 거기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이벤트가 존재함
- 3) 혐오에 대한 대항표현에서 방아쇠에 대한 단순한 해명은 오히려 혐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의식의 전환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



2. 중간층(그레이존)의 언급을 바꾸어야 한다

- 1) 부정적인 언급의 증가는 기존에 부정 언급을 하던 이들이 언급량을 늘리거나 특정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던 이들이 부정적인 언급을 새로 작성하면서 이루어짐
- 2) 이벤트 발생 이전에 이미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언급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매우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 3) 긍정 언급을 '대세'로 만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이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혐오에 대한 대항은 단순한 해명보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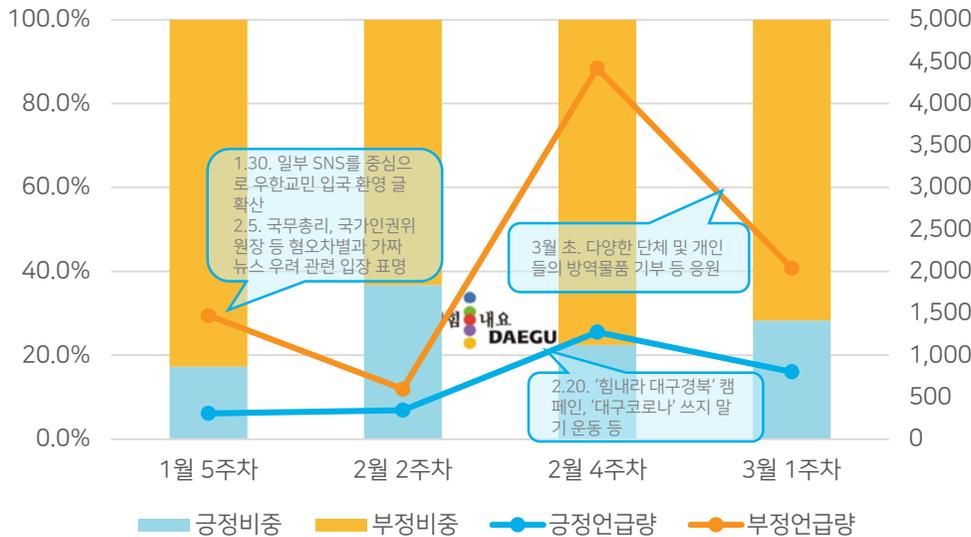
1. 코로나19와 연관해서 대구 관련 혐오발언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1) 지역혐오 발언 중에서도 대구 관련 혐오발언은 평소에도 꾸준히 존재해왔던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부정적인 발언 역시 크게 증가하였음
- 2) 2월 말~3월 초에 걸쳐 이루어진 #힘내요DAEGU 캠페인이나 다양한 단체 및 개인들의 응원의 영향으로 긍정 언급이 증가하고 부정 언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2. 단순한 해명보다는 새로운 프레임의 제시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1) SNS를 중심으로 대구에 대한 응원의 모습이 확산되고 방역물품 기부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정적인 발언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남
- 2) 혐오의 중단이 아닌 대구 주민들에 대한 연대와 고생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응원 등을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글을 쓰기 어려운 공동체 강화의 분위기가 형성됨
- 3) 혐오와 차별이 나쁘다는 사실의 제시보다 다른 아젠다의 셋팅을 통해 새로운 프레임을 대중에게 던짐으로써 긍정 발언을 높이고 부정 발언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혐오 공부정 발언 추이



'대구' 관련 긍정 단어 추이

순위	1월	2월	3월	4월	5월
1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2	최고	최고	도움	최고	최고
3	중요하다	중요하다	노력하다	도움	맛있다
4	노력하다	노력하다	최고	원하다	중요하다
5	맛있다	도움	원하다	노력하다	노력하다
6	좋아하다	맛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도움
7	쉽다	원하다	자세하다	맛있다	기대하다
8	기대하다	쉽다	사랑	자세하다	원하다
9	도움	최대한	최선 다하다	기대하다	좋아하다
10	원하다	최선 다하다	행복	쉽다	쉽다
11	자세하다	자세하다	기대하다	사랑	사랑
12	깔끔하다	사랑	쉽다	좋아하다	편하다
13	편하다	기대하다	맛있다	행복	자세하다
14	유명	여명	기원	편하다	맞추다
15	사랑	좋아하다	여명	맞추다	깔끔하다

대구 시민에 대한 연대(도움), 의료진에 대한 응원(최선 다하다)이 나타난 긍정 연관어의 추이

1) 댓글 정책 변화에 대한 효과 분석 한계

- 조사기간 중, 혐오발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댓글 이력을 공개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댓글 관련 정책의 변화가 존재하였음
-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댓글 관련 분석은 이번 분석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 해당 변화가 실제로 혐오발언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댓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 사용된 SNS분석이 아닌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음
- 인터넷 사업자의 정책 변화에 따른 혐오 발언의 변화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해볼 수 있을 것임

2) 혐오에 대한 대응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꾸준한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

- 장기적으로 대항표현의 변화 등, 혐오에 대한 대응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포함한 전체적인 추이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조사기간 중 일부 혐오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정부 및 언론, 관계기관의 대응이나 SNS상에서의 캠페인 등이 긍정적인 언급의 증가라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일부 부정적 언급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인식의 긍정적인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효과의 차이를 보임
- 혐오에 대한 대응은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각 토픽 별로 혐오와 부정적인 언급을 증가시키는 방아쇠(Trigger)를 파악하고 서로 다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임
- 이 부분은 본 연구의 범위나 예산의 문제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향후 혐오 관련 집단이나 토픽 별 상관관계 및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혐오의 카테고리별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 인쇄일 | 2020년 9월
| 발행일 | 2020년 9월
| 발행인 | 최영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 | |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혐오차별대응기획단 02)2125-9671
| F A X | 02)2125-0932
| 제 작 | 우리동네출력소 070-7750-3452

한국문헌번호(ISBN) : 978-89-6114-762-0 93330 비매품



국가인권위원회